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발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2차 연도)

정 기 환 연구 위 원
심 재 만 초청연구원

연구 담당

정 기 환	연구 위원	연구총괄, 집필
심 재 만	초청연구원	현지 조사, 조사표 작성

머 리 말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의 2차 연도 성과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행위 중심으로 재정립하였으며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변수를 설정하였다.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가설적으로 설정하고 요인 분석을 통하여 이의 유의성을 분석하였으며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지수화했다.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회자본을 측정할 지표의 개발이 미흡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지수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지표화했으며 사회집단 별로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라고 평가된다.

이 연구는 3차 연도의 연구를 남겨 놓고 있다. 3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일반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자본이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농촌 지역개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농촌 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정책 입안자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200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제2차 연도 연구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행위 중심(action oriented)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자본의 변수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4개의 변수로 설명했다.

금년도 연구는 1차 연도의 연구에 이어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사회집단 단위로 측정했으며, 측정된 사회자본의 집단간 비교와 함께 사회자본이 집단의 성과와 집단 회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사회자본 지표(social capital indicator)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자의 논리적 틀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설정했으며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자본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별로 지표 구성 요소(indicator component)를 설정하였다.

지표 구성 요소는 각 지표를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는 단일 사회집단 속에 내재된 사회자본 측정에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마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마을 사회의 사회자본에 관한 종합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에 관한 지표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설정했다.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동료간의 신뢰 증진, 전통적 상부상조 혜택, 토지와 금융 및 기금 등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육과 정보 등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규범 준수 등 6가지를 설정했다.

협동 관련 사회자본 지표는 동료간의 노동력 교환, 애경사시 상부상조, 공동기금 조성 참여, 공동 행사 참여, 집단의 결정 사항 실천,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 6가지를 설정했다. 경쟁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경쟁과 관련된 품질 향상, 생산력 향상, 지도력 확보, 지위 향상 등 4가지의 지표를 설정했으며 갈등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로는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 갈등,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정치적 이해 갈등,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이념적 갈등 해소 등 6가지를 설정했다.

사회자본 측정은 각 지표별로 지표의 성격을 잘 내포하는 지표 구성 요소를 2~4개씩 선정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질문지를 구성한 다음 현장 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질문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회자본을 지수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사는 6개 마을의 작목반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측정된 사회자본을 작목반 단위 변수별로 종합지수화하여 작목반별로 비교 분석했다.

사회자본 측정 값은 집단간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출하 등 집단의 협동활동이 좋은 작목반에서는 협동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높게 나타났고 이익 배분이나 경영상의 분쟁을 겪거나 지도력이 취약한 작목반에서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이나 협동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낮은 반면 갈등 관

런 사회자본 값이 높았다.

사회자본의 설명 변수로 설정한 4개의 변수로 작목반원의 소득과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작목반원의 소득은 13.7%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었지만 소득이 물적 자본과 기술, 인적자본, 사회의 경제사회 환경 및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3.7%의 설명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에서 사회자본이 지니는 설명력은 51.4%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작목반원들의 사회활동 절반 이상에서 사회자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소득 면에서 사회자본이 13.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의 소득 창출 활동은 개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집단 조직원들의 협동과 신뢰, 기회와 자원의 활용,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자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창출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를 통하여 측정된 사회자본 값은 집단간에, 그리고 변수 간에 매우 안정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 값이 집단 상호 간, 그리고 변수 사이에서 안정되게 일관된 추세를 보여 주는 것은 지표의 설정이 정교하게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사회자본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집단의 4개 변수별로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집단별로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를 비교 분석한 이 연구는 세계은행 등 외국에서 수

행된 기존의 선행연구가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과 측정된 사회자본과 개인의 소득과의 관련성 정도의 분석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연구의 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재개념화에 의한 변수의 설정과 지표 설정, 사회자본 측정과 유의성 검증 등 사회자본 측정 방법론 개발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작목반의 사회자본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4개의 변수와 지표를 마을 단위의 다른 사회집단에 적용하여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보다 정교한 변수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제3차 연도 연구를 남겨 놓고 있다. 3차 연도에서는 마을 단위의 여러 사회집단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연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ABSTRACT

Developing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This is second year product of the research of social capital in rural community, which is designed to conduct for three years. The first year research focused to conceptualize the social capital by using action oriented four variables: social exchange and compensation,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This research focused to develop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were induced by the conceptual frame of this research. Hypothetical social capital indicators were set by each variable. The hypothetical social capital indicator must be objective, which is adoptable to any social context.

The next step was to verify the hypothetical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For this, each hypothetical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 identified several indicator components, which could express the typical meaning of each indicator, and could be adoptable to any social context. Each indicator component has several questions, and social capital index could be measurable through these questions. All questions were designed with 5 grade measuring scale.

Hypothetically, six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for social exchange and compensation were set. They are the improvement of socio-economic status of group members, enhancement of trust among group members, benefits from the mutual helping system of group, the improvement of access to the common resources and funds of group or capital loans from banks, the improvement of access to the opportunities for getting training and information, and pay observance of group rules and

norms.

Six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for cooperation were set. They are the labor exchange among members for getting common goals, helping members mutually for social functions, money contribution for establishing the common fund of group, participating group events, supporting group decision.

Four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for competition were set. They are the competition for producing better quality, and productivity, the competition of leadership of the group, and the competition for improving individual socio-economic status among members.

Six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for conflict were set. They are the conflict solution capability of economic, political and ideological dimensions within the group and between groups.

The social capital was measured from 5 groups producing strawberry in village communities in Kwangsuk Myun of Nonsan city area and one water melon production group in Puyeon Kun. The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were verifi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fixed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Social capital of each group were identified by index: social exchange and component index(ECI), cooperation index (COI), competition index(CPI), and conflict resolution index (CRI). The social capital index could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very precisely. The groups with strong cooperation through cooperative marketing under strong leadership show that the ECI, COI and CPI were higher than other groups, and the groups had conflict on leadership and problems in group decision making show that CRI was higher than other groups.

In correlation analysis, the social capital could explain the income of production group members by 13.7 percent. However, the social capital could explain the every day activities of production group by 51.4 perc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income of individual members is

determined by many factors such as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technology, market condition, and even by the weather condition, the 13.7 percent of explanation is not low. Income could not be generated by alone, but through cooperation among others within the given condition of social system. Therefore, the social capital has a great impact on the income generation and daily life activities of group members.

This is a case study, and the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 was made for crop production group in village community.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generalize the result of this study and develop the social capital measuring indicators for rural community, which is an integrated entity of various social groups.

Researcher: Ki-Whan Chung

E-mail address: kwchu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 1. 사회자본 측정의 중요성 1
- 2. 농촌개발에서 사회자본의 의미 7
- 3. 연구 목적 10
- 4. 연구 내용 11
- 5. 연구 수행 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1. 국내 연구 동향 14
- 2. 외국의 사회자본 측정 연구 16

제3장 사회자본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한 분석 틀

- 1. 마을 지역사회의 구조와 사회적 상호작용 25
- 2.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의 가설적 설정 30
- 3. 지표의 가설적 설정 45

제4장 사회자본 측정 지표의 설정과 측정

- 1.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50
- 2. 사회자본 측정 68
- 3. 사회자본과 집단 성과와의 관계 81

제5장 결 론 90

부록 1.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설문서	96
2. 사회집단 현황 조사표	123
3. 다중회귀분석 결과	125
4. ‘뜻개 딸기 작목반 운영 규정’	128
참고 문헌	131

표 차 례

제3장

표 3- 1.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46
표 3- 2. 협동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47
표 3- 3. 경쟁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48
표 3- 4. 갈등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49

제4장

표 4- 1. 사례 작목반의 현황	53
표 4- 2. 사례 작목반 반원의 일반 현황	53
표 4- 3. 작목반의 운영 방식	55
표 4- 4. 사회적 교환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61
표 4- 5. 협동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63
표 4- 6. 경쟁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64
표 4- 7. 갈등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65
표 4- 8.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지표별 지수	70
표 4- 9. 협동 관련 지표별 지수	73
표 4-10. 경쟁 관련 지표별 지수	76
표 4-11. 갈등 관련 지표별 지수	79
표 4-12. 사회자본과 작목반 구성원의 소득과 일상 생활활동과의 상관관계	83

표 4-13.	작목반원의 소득과 사회자본의 관계	84
표 4-14.	작목반원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과 사회자본의 관계	85
표 4-15.	일상적 생활 활동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 자본의 관계	86
표 4-16.	일상적 생활 활동과 협동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	86
표 4-17.	일상적 생활 활동과 경쟁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	87
표 4-18.	일상적 생활 활동과 갈등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	88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1. 나라얀과 캐시디의 사회자본 분석 틀 20
- 그림 2-2. 나라얀과 캐시디의 사회자본 지표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 21
- 그림 2-3. 나라얀과 캐시디의 사회자본 지표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수정) 23

제4장

- 그림 4-1. 사회자본 측정 지표 개발 절차 51
- 그림 4-2.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71
- 그림 4-3. 사회적 교환과 보상의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표별
지수 추세 71
- 그림 4-4. 협동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74
- 그림 4-5. 협동 관련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표별 지수 추세 74
- 그림 4-6. 경쟁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77
- 그림 4-7. 경쟁 분야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수 추세 77
- 그림 4-8. 갈등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80
- 그림 4-9. 갈등 분야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수 추세 80

제 1 장

서 론

1. 사회자본 측정의 중요성

슐츠(Schultz 1976)는 물적 자본이 동일한 조건에서 집단이나 기업의 생산성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을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차이로 설명해 왔다. 슴츠 이후 물적 자본의 생산력은 잘 훈련된 인적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동일한 조건에서 두 집단이나 기업의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1980년대 부르디 등(1986)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특히, 미국 이민 사회에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민을 온 사회집단 구성원은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민을 온 사회집단에 비해 교육에 대한 성취도가 높고 사업 성공률과 사회적 신분 상승이 높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온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서 사회자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사회자본은 이와 같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동일한 조건을 이루고 있을 때 나타나는 생산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틀로 사회학은 물론 정치학, 행정학, 지리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은 모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 사용되고 있거나 학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도 사회자본의 개념과 활용성에 대한 논의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서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관련하여 사회자본의 개념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유용성 검증과 실제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생산 과정에서의 최소율의 법칙과 같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충족된다고 해도 사회자본이 결여되면 소기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UN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축적 여부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원조를 통해 물적 자본을 지원하고 훈련을 통해 인적 자본을 육성해도 사회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면 지역개발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¹ 한국에서 사회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박희봉과 김명환(2000)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사회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의 두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시적 관점의 사회자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집단이나 가족과 같이 작은 안면사회(face to face community) 속에서 사회자본의 역할과 기능 등을 연구한다. 즉, 미시적 관점의 사회자본 연구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을 측정해 보고자 하며, 집단이 축적한 사회자본이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의 사회자본 연구는 국가 또는 광역의 시민조직(civic organization) 속에서 사회 구성원이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조직에 참여하는 정도와 사회발전과의 관련성을 가늠하는 연구와 이와 같은 사회자본이 국가발전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자본과 국가발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의 연구 방향에서 활동하는 학자 중에는 나라얀(D. Narayan)과 프리쳇(Pritchett), 포르테(Portes) 등이 있다. 지역사회 속에 내집단으로 존재하는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 간에 나타나는 사회자본의 연구는 집단의 구성원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사회자본을 얼마나 획득하고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축적량이 많고, 이를 구성원들이 잘 활용할수록 사회자본이 집단 혹은 개인의 이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논리다.

여기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나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는 달리 개인이 홀로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즉, 사회자본은 언제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획득될 수 있는 성질이기에 때문에 사회자본의 발현은 사회조직(social group)이나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속에서, 또는 이와 같은 조직의 활동(group activity)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사회집단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발현되는 사회자

본은 이를 활용하는 사람의 직위나 능력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사회집단의 대표인 회장이나 총무 등과 같이 사회집단 내부의 규칙이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 구성원에 비해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정도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집단 내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이라도 이를 잘 인식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자본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사회자본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된다.

나라얀과 프리쳇(Narayan and Pritchett 1997)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사회자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 자본의 축적 정도가 많은 마을의 주민이 그러하지 못한 마을의 주민보다 소득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후자의 연구 방향에서 활동하는 학자로는 퍼트남(Putnam), 후쿠야마(Fukuyama), 에반스(Evans), 올센(Olsen) 등이 있다. 퍼트남(Robert Putnam 1993a)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친목단체나 정치집단, 환경단체 등에 참여하여 이웃들과 대화하게 될 때, 그 구성원은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자본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퍼트남(Putnam 1993b)은 미국 사회에서 사회자본의 축적도가 높은 주(state)가 사회자본의 축적도가 낮은 주에 비해 범죄율이나 실업률, 빈곤율이 낮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회자본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서 빈곤 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쿠야마(Fukuyama 1995)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대규모의 자본주의 기업이 창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 등이 필요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성, 도덕적 의무감,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감 등 사회자본이 사회 속에

배태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은 에반스(Evans 1995)와 올슨(Olson 1982)의 연구에서와 같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경제성장 과정에서 법률, 제도, 관행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은 IT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한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의 경직된 지원과 간섭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Evans 1995).

정기환(2003)의 연구는 이제까지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는 사회자본의 측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자본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이미 포르테(Portes 1998)나 그루타에트(Grootaert 1997)등이 지적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그는 2003년도에 “농촌지역 사회자본의 존재양태 분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자본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

사회자본이란 “지역사회의 사회집단 또는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 능력은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행하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social exchange and compensation), 협동(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갈등(conflict)을 말한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행위 중심(action oriented)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견해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선의의 경쟁 등이 나타날 때, 사회자본은 그 집단의 구성원 및 집단의 이익과 목적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그 정도가 클수록 사회자본의 효과

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은 자칫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대안 모색 등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도가 큰 집단이나 지역사회는 집단 내 혹은 집단간 갈등이 표출될 때,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을 상호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찾아낼 수 있지만, 사회자본의 축적도가 낮은 사회에서 갈등이 나타날 경우 신뢰의 부족으로 갈등의 해소 방안을 찾기가 어렵게 되며 파경을 맞을 수도 있다.

갈등은 한번 해소된다고 해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집단 내부 혹은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해소된다. 발생했던 갈등이 해소되면 갈등 발생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거나 갈등 해소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집단의 운영이나 생산성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사회자본은 사회집단이나 네트워크 속에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의 양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사회자본의 축적이 큰 집단일수록, 그리고 집단이 지닌 사회자본을 그 구성원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때, 집단과 구성원이 얻는 경제적·사회적 이득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경우 사회자본을 집단(social group), 네트워크(network), 규범(norms), 신뢰(trust) 등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정의 하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모호한 개념으로는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회자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자본의 측정은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회자본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어야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수 있고, 사회자본을 지표로 측정할 수 있어야 사회자본의 축적이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제까지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지표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 농촌개발에서 사회자본의 의미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사회자본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사회자본의 축적이 왜 농촌개발에 중요한가?

1950년대의 한국은 절대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한국의 경제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했던 한·미경제조사단(OEC)의 애덤스(Lucy W. Adams) 지역개발국장은 한국의 어려운 농촌재건을 위해서 UN과 미국 원조청(ICA)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 program)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한미합동으로 경기도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 결과 한미합동 조사단은 “한국의 농민들은 자력으로 자신들의 마을을 개선해 나아갈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하였다(농촌진흥청 1979).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농민들은 절대빈곤 속에서도 외부의 지원이 있을 경우 협동과 자조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협동과 자조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식량증산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70년대에 실시된 농촌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49%를 농촌주민이 부담하면서 농촌마을 환경 개선, 농로개설과 하천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자조, 자립, 협동 정신의 함양으로 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UN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자조, 자립, 협동정신, 자주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은 곧 사회자본을 의미한다. 당시 한국의 농촌사회에 존재했던 사회자본은 누가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사회 속에 내재되어 온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의 하나로 주민이 지니고 있던 삶의 양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를 수행하기 위해 계(契)를 조직해 상부상조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러한 계 조직은 오랜 역사와 함께 마을 주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민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와 협동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농촌 지역 사회에서 계(契)는 농촌사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 농촌사회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집단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민간 부문이 매우 취약했던 1950-60년대, 정부는 농촌개발을 정부 주도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에 각종 학습단체를 조직·육성해 왔다. 이들 마을 단위 학습조직은 정부가 보급하는 농업기술과 생활기술 전파의 거점 역할을 했으며 가족계획이나 절미·저축운동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수용해 실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60-70년대는 각종 계(契)가 많이 출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정기환 1987).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 사회집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이후 거세계 나타난 이농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1977년도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정부 지원하에 조직 운영되던 각종 학습 조직을 영농회, 부녀회, 청소년회로 통합한 것이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농촌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의 축소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의 와해와 축소 또한 사회자본의 축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농업·농촌사회에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는 시장개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농촌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약간의 물질적 지원을 하고 운동의 지침을 정해 추진했지만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모두 주민의 몫이었다. 따라서 1970년대의 농촌개발사업은 주민 참여가 매우 활발했던 시기였으며 마을 단위 농촌개발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도 주민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 농촌개발 정책은 이와 대비된다. 농촌종합 개발,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사업 등에서 농촌 주민의 참여가 축소되고 개발의 전문성을 내세운 정부, 전문기관과 전문가 등에 의해서 농촌개발 사업이 주도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촌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축소는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축소를 의미한다.

세계화, 시장개방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EU의 대응은 우리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시장개방 등으로 농업 부문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EU는 과감하게 보조를 축소하고 정책 개발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시장개방의 문제를 주민 참여, 파트너십 강화, 주민 참여가 전제되는 새로운 형태의 관리방식(거버넌스)의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 주도의 정책, 특히 생산이나 가격 관련 농업보조

정책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나 농촌의 회생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U의 주민 참여 강화와 파트너십 강화, 주민 참여에 의한 새로운 지역관리 체제의 구축은 곧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 축적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보조도, 기술 축적도 주민 참여가 전제되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에서도 최근에 주민 참여와 파트너십 강화, 뉴 거버넌스 등의 개념이 등장한다. 최근에는 지역혁신과 농업 클러스터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 모두 주민 참여와 합의, 협력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사회자본을 의미한다. 한국의 농촌개발, 특히 농촌개발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적 보조에 의한 물리적 자본 축적이나 기술의 개발·보급만으로는 어렵다. 물리적 자본과 기술력의 발현은 인적 자본의 육성과 함께 사회자본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연구 목적

이 연구는 2003년도에 시작하여 2005년까지 수행할 3개년도의 연구 중 2차 연도에 해당하는 연구다. 이 연구는 2003년도의 연구에서 얻은 사회자본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여 사회자본의 존재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측정을 통하여 이 측정 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4년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설정한 변수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개발된 지표를 사례 마을의 사회집단에 적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그

결과의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가 집단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연구 내용

4.1. 1차 연도

1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사회자본을 행위 지향적(action oriented)인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개념 설정에 따라서 농촌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형성 메커니즘과 존재 양태를 파악하였다. 1차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자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사회자본의 조작적 정의
- 농촌 지역 사회집단 구성원 간의 사회자본 형성 메커니즘
 -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와 규범 형성 과정
 -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조직과 집단의 조직 형태와 운영 메커니즘
 - 농촌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의 형성 메커니즘
-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자본 존재 양태 분석

4.2. 2차 연도 연구 내용

- 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한 변수 선정과 지표 개발
 -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지표

- 협동 활동에 관한 지표
- 경쟁과 관련된 지표
- 사회적 갈등과 해소에 관한 지표
- 지표를 활용한 사회자본의 측정
 - 사회적 교환과 보상에 관한 사회자본
 - 협동 활동에 관한 사회자본
 - 경쟁에 관한 사회자본
 - 사회적 갈등 해소에 관한 사회자본
- 사회자본 측정 지표의 유용성 검토
 -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와 생산성과의 연관성
 -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와 사회조직의 효율성

4.3. 3차 연도 연구 내용

- 사회자본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농촌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과 기능²
- 연구 종합

² 연구 설계 단계에서 사회자본 지표 개발과 측정 그리고 사회자본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두 가지의 큰 목표가 2차 연도의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두 가지 내용이 상이하야 하나의 연구 테마로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3차 연도에도 사회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을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3차 연도에 사회자본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연구 내용에서 제외하고 사회자본의 지표 설정과 측정 및 지표의 유효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5. 연구 수행 방법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마을 사례 조사를 통하여 사회자본 측정 지표의 유의성 검증
 - 마을 사회집단 내부에 형성된 사회자본의 실체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마을간 비교
 - 충남 논산시 및 부여군의 농촌 마을 내에 형성된 사회집단의 사회자본 축적 정도를 현지 면접조사를 통해 측정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1.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소개하거나 이를 적용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재열 1998; 김용학 1999; 유석춘과 장미혜 2002; 한도현 2000; 서순탁 2001)이 대부분이다.

사회자본의 측정을 시도한 연구로 박희봉과 김명환(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희봉과 김명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자본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포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사회 참여와 사회자본 간 관련성을 측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이들은 규범과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 공유의 정도를 사회자본으로 보고 이러한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와 주민의 정치

참여, 자원봉사, 지원 행사 참여, 수평적 단체 참여, 수직적 단체 참여 등과의 관련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치 참여와 사회 봉사 참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직적 단체에의 참여가 높을수록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평적 단체의 참여는 사회자본의 어떠한 요인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박희봉, 김명환 2000, 228)³

이들이 사용한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퍼트남의 연구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다. 퍼트남이 사용한 바와 같이 주민의 정치 참여, 자원봉사 참여, 수직적·수평적 단체에의 참여 등과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퍼트남은 이와 같은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의 실업률, 빈곤율, 범죄율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자본의 축적이 지역사회 발전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주민의 사회 참여가 사회자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정치 참여, 자원봉사 등은 이미 퍼트남(Putnam 1993a) 등에 의해서 사회자본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는 ‘동어 반복’(tautology)의 오류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연구는 정치 참여나 봉사 활동, 단체 가입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유형이 개인들의 신뢰, 규범, 집단 내 협력, 정보 공유 등과 같은 또 다른 범주의 사회자본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³ 이 연구에서 이들이 사용한 사회자본의 지표는 규범, 신뢰, 집단 내 협력, 정보 공유다. 이들이 사용한 지표는 각각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문항을 통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계측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지숫값은 규범이 2.75, 신뢰가 3.13, 집단 내 협력이 2.95, 정보공유가 2.7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문항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어떻게 통합된 지숫값으로 환산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연구자들이 논문의 결론에서 이미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231-234).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존 학자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의 연구들(천현숙 2004; 박희봉, 김명환 2000)은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시도라기보다는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혹은 주민의 관계나 특성을 파악하는 변인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 외국의 사회자본 측정 연구

외국의 사회자본 측정 연구는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사회자본의 축적이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와 실제로 “사회자본을 어떻게 측정하여 지표화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연구로 콜만, 퍼트남, 에반스, 나라얀, 울콕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퍼트남(Putnam 1993a)은 시민사회의 발전이 사회자본을 형성시키고 이러한 결과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즉, 이탈리아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북부와 그러하지 못한 남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부 이탈리아 주민은 자발적인 시민단체와 봉사 활동, 투표 등 정치 참여, 문학 서클이나 합창단 등 서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면 남부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시민단체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시민 참여를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고 사회자본의 축적이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퍼트남(Putnam 1993b)은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이용하여 짧게는 지난 25년에서 길게는 지난 100년간 미국 시민의 각종 사회 단체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미국 사회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 축소로 점차 사회자본이 축소되어 왔고, 사회자본의 축적이 높은 주(state)는 실업률이나 범죄율 등이 낮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주(state)에서는 반대로 실업률,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에서 사회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퍼트남은 이 연구에서 단체 가입률 자체를 사회 참여로 보고 이를 사회자본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주별(州別)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와 해당 주의 교육 실적, 보건위생 정도, 경제적 평등 정도, 아이들의 텔레비전 시청률 정도 등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변수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며 집단의 가입률 자체를 사회자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라얀과 프리첷(Narayan and Pritchett 1996)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회자본 및 빈곤조사(social capital and poverty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많이 축적한 지역사회의 주민 소득이 그러하지 못한 지역사회 주민 소득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회자본이 그 구성원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회집단 가입 여부 및 그 집단의 성격을 조사하고 한편으로는 각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사회자본 양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가 높을수록 농가의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나라얀과 프리쳇이 사용한 자료 중 사회자본은 개인들의 사회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이용한 대리변수이며 개인의 사회자본의 축적을 집적하여 마을의 사회자본 축적으로 환산하고⁴ 이를 통해 확보된 마을의 사회자본 축적과 개인의 소득 관계를 분석하여 마을의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와 개인의 소득이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나라얀과 프리쳇의 연구는 집단이 소유한 사회자본이 집단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즉, 지역사회의 축적 정도가 개인의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면 지역사회가 축적한 사회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지역사회의 생산성은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는 에반스(Evance 1995)나 올슨(Olson 1996)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나 사회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이 국가나 사회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나 단체가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설사 사회자본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해도 지역사회나 단체의 생산성을 측정하여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가 집단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이를 이용한 측정에 관한 연구가 계속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이를 사용하는 학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된

⁴ 이 연구에서 마을 주민의 사회자본 축적을 마을의 사회자본 축적으로 환산한 방법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개념과 지표를 확보하기가 지극히 어렵다.⁵

그루타에트 등(Grootaert, Narayan, Jones, and Woolcock 2003)은 기존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자본의 개념을 재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분류를 얻었다.

- ① 사회집단과 네트워크(social group and network)
- ② 신뢰와 단결성(trust and solidarity)
- ③ 집단행동과 협동(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 ④ 정보와 대화(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⑤ 사회적 응집력과 단합(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 ⑥ 임파워먼트와 정치적 행위(empowerment and political action)

이들은 이와 같은 분류하에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조사 문항을 작성하여 개인 조사를 통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했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라얀(Narayan 1998)은 세계은행의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여러 학자들의 사회자본 관련 논문을 종합하고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25개의 설문서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분석틀(Framework of Global Survey of Social Capital)을 작성하였다. 그는 이 분석틀을 가나와 우간다의 현장조사에서 실험하였으며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⁵ 사회자본의 지표화는 가족연구, 지역사회 연구, 사회집단 연구, 지역연구, 국가 및 사회연구 등 공간적 영역을 다루는 학문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또한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인구학, 경영학 등 학문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이라는 지역사회와 마을사회 내의 사회집단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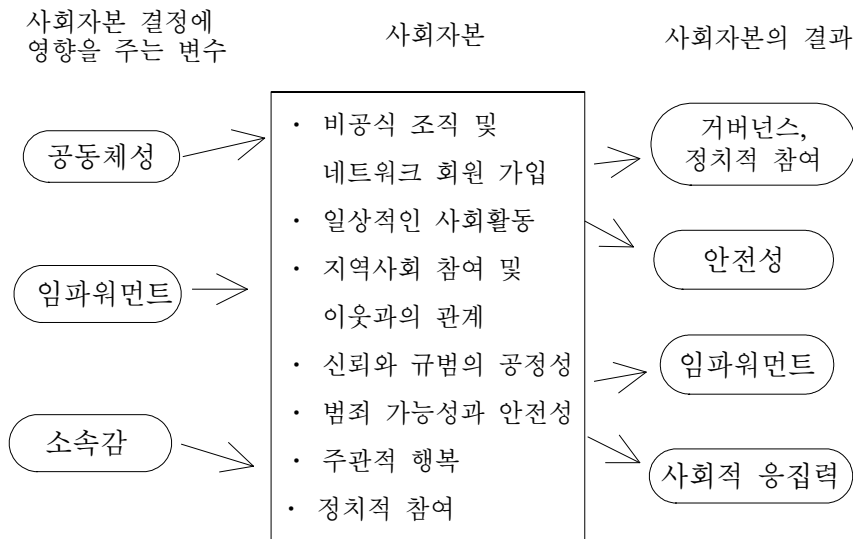
그림 2-1. 나라얀과 캐시디의 사회자본 분석 틀

사회자본 변수	하부 개념
집단의 특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 구성원의 크기 2. 회비 등 현금 출연 여부 3. 참석 정도 4. 의사결정에의 참여 5. 집단 구성원의 혼합성/단일성 6. 집단 운영 경비의 출처
규범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들의 도움 정도 2. 사람들의 신뢰성과 공정성
어울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들의 상호 어울림과 그 정도
일상생활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생활 활동
이웃과의 관련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웃 어린이 돌보기 2. 병이 났을 때 도움 요청
자원 봉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 실적과 경험 2. 봉사 활동의 기대와 불참시 비난 3. 이웃의 공정한 봉사 활동 참여
신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 이웃에 대한 신뢰 2. 타 부족, 계급에 대한 신뢰 3. 사업가, 공무원, 판사, 경찰에 대한 신뢰 4. 지방 공무원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자료: Narayan and Cassidy(2001).

나라얀과 캐시디(Narayan and Cassidy 2001)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나라얀의 1999년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틀(social capital measurement frame)을 작성하였다. 이 분석틀은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이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2-2. 나라얀과 캐시디의 사회자본 지표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



자료: Narayan and Cassidy(2001).

나라얀과 캐시디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community solidarity), 임파워먼트(empowerment),⁶ 그리고 사회 단체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꼽았다. 사회자본의 영역에 속하는 변수로는 비공식적 조직이나 네트워크의 회원 가입, 일상적인 사회 활동, 지역사회 참여 및 이웃의 도움, 가족 간의 연계성, 범죄 발생과 안전성, 주관적 행복도, 정치 참여 등을 꼽았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정치적 참여, 사회 안전성, 임파워먼트, 사회적

⁶ 여기서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지역사회 또는 단체의 소속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소속된 단체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응집력을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결과라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임파워먼트는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형성·강화될 수도 있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은 정치 참여 정도는 사회자본이라기보다는 사회자본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임파워먼트는 사회자본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오히려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성은 사회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기보다는 이러한 속성이 사회자본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나라안과 캐시디는 다음과 같이 7개의 변수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로 삼았다.

① 집단의 특성(group characteristics)

비공식적인 집단과 특정의 성격을 지니는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그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집단 가입과 회비 납입, 기부금 출연, 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포함한다.

② 규범화(generalized norms)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타인에 대한 관심, 신뢰,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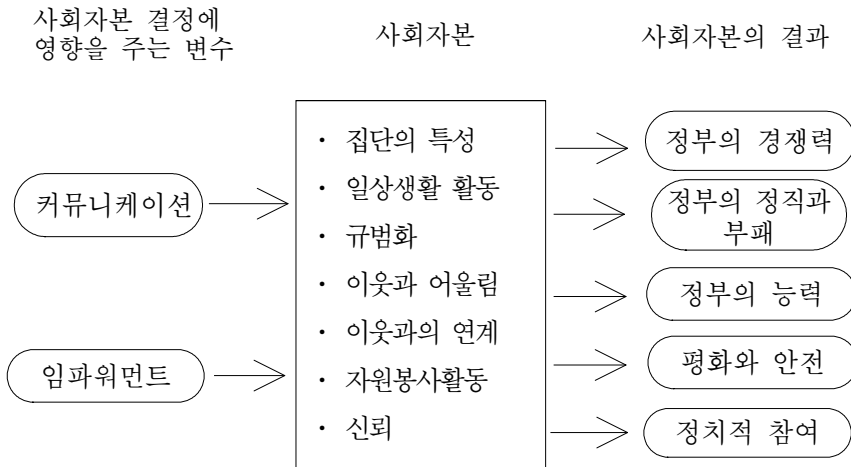
③ 사람들과의 어울림(togetherness)

이웃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정도를 말하며 이웃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는 정도, 어울림 정도를 말한다.

④ 일상생활에서의 사회 활동(everyday sociability)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예술 활동, 공예품 제작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을 얼마나 하며 누구와 어울리는지 등을 포함한다.

그림 2-3. 나라얀과 캐시디의 사회자본 지표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수정)



자료: Narayan and Cassidy(2001).

⑤ 이웃과의 관계(neighborhood connection)

이웃집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돌보기, 병이 났을 때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청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⑥ 자원봉사 활동(volunteerism)

마을의 공동행사 등에 봉사 활동을 하는 정도, 기대, 불참시의 비난 등과 참여의 공정성 등을 포함한다.

⑦ 신뢰(trust)

자신이 속한 가족 구성원, 이웃, 부족에 대한 신뢰, 같은 집단 소속원에 대한 신뢰, 사업 파트너나 협력자에 대한 신뢰, 지역의 경찰, 판사, 공무원,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 등을 포함한다.

나라얀과 캐시디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를 사례 지역으로

삼아 수행되었지만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 정교한 틀을 사용하여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간의 요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변수를 지표화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과 빈곤 타파를 위해 사회자본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사회집단별 혹은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이를 통해 농촌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아직도 사회자본의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을 집단별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집단별로 측정한 다음 집단간의 사회자본의 양을 비교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보다 한 단계 진전된 연구라고 사료된다.

제 3 장

사회자본 측정 지표 설정을 위한 분석 틀

1. 마을 지역사회의 구조와 사회적 상호작용

1.1. 마을 지역사회

이 연구에서 마을은 지방행정의 최소 단위인 행정리를 말한다. 행정리는 자연부락이 하나 이상이 모여 만들어진 일종의 지역 공동체를 말하며 마을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이장이 있다.

전통적으로 마을은 주민 자치 단위로서 주민이 스스로 대동계를 조직하여 마을 자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자조적으로 기금을 모아 마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⁷ 조선 시대에도 대동계는 마을 단위의 주민조직체로서 생활공동

⁷ 대동계는 동계, 촌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해준(1990)은 조선 시대의 향촌사회에서 동계(洞契)를 기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지배층의 결사체로, 촌계를 기층민의 생존을 위한 생활공동체적 결사체로 구분하기

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7세기의 동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계는 구성원의 자격, 가입 절차, 운영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농촌사회의 마을 조직들은 조직 내부 구성원 간에는 평등적인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나지만,⁸ 조직 외적으로는 수직적 행정체제에 따라서 운영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대동계는 마을 공동제사, 두레 등 공동 노동 부담, 혼·상사 때에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 대처, 세금의 공동 납부, 마을 공동 건축물 축조, 마을 도로와 하천관리, 교량 건설 등 하부구조 관리 등을 위해 공동 자산을 조성하고 필요시 경비를 모금하는 등 주민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적 생활공동체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호 등 1991).

마을 지역사회는 1890년대 이후 조선왕조의 행정조직 정비계획에 따라서 면행정과 연계된 이정(里正)⁹을 두게 됨으로써 이정이 마을의 대동계장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1914년에 일제는 전국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수개의 마을을 통합하여 광역 이(里)제를 도입하였다. 이때부터 행정조직으로서의 이정과 마을의 전통적인 대동계는 이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¹⁰ 일제는 다시 1917년도에 이정

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동계와 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해 오던 동계와 촌계를 대동계로 총칭한다.

⁸ 브란트(Brant 1975)는 한국의 마을 사회조직은 평등적 원칙과 위계적 원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⁹ 1893년도 전남 구례군 오미동의 경우 이정은 면에서 부과하는 조세의 징수와 동전곡(洞錢穀) 및 마을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김성호 등 1991).

¹⁰ 1914년도에 개편된 광역리제는 전통적으로 자치행정 단위가 되었던 마을 수개를 통합한 조직으로 통합된 광역리는 자치적 행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주민자치 기능을 지닌 전통적 대동계와 광역

(里正)제를 폐지하고 구장(區長)제도를 도입하고 종전의 마을에는 서기를 두어 구장을 보조하도록 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리 제도는 법정리(法定里)의 형태로 존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법정리가 주민의 경제사회적 연계망을 가지는 자치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 자치 기능이 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행정리(行政里)제도를 도입하여 각 마을 단위로 이장(里長)을 두고 행정처리 업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 사회에는 대동계 이외에 상사계, 친목계, 혼인계, 쌀계 등 각종 계 조직이 중층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문중별로 문중조직이 있다. 문중 조직은 한 마을뿐만 아니라 수개의 마을에 걸쳐 조직될 수도 있다. 대체로 문중 조직은 동일 부계출(父係出)의 혈연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마을 내에서 다른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문중 조직원들이 다른 사회집단 구성원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지니게 된다.

1.2. 사회적 상호작용

마을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조직 혹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은 상호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교환과 보상(social exchange and compensation), 협동(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갈등(conflict)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¹¹

리제는 별개로 운영되었다.

¹¹ 이 부분은 2003년도 필자의 연구 결과 중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을 요약한 내용이다.

1.2.1. 사회적 교환과 보상(social exchange and compensation)

지역사회 안에서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집단은 그 구성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회원이 누릴 수 있는 정보와 기회, 자원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그 대가로 구성원은 집단이 정한 규범을 준수하고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충실하게 된다. 이때 집단의 목표 달성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집단이 제공하는 보상의 정도는 크게 나타나게 되며 구성원은 집단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1.2.2. 협동(cooperation)

협동이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말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상호작용은 협동을 전제로 한다. 협동의 형태는 자발적 협동, 전통적 협동, 계약적 협동, 지시된 협동의 4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Nisbet 1970).

자발적 협동은 사회 구성원이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게 되는 간단한 형태의 비조직적인 협동 행위라고 한다면 전통적 협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번 나타난 자발적 협동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차 사회의 전통과 관습으로 고착된 협동을 말한다. 농촌에서 이웃집이 바쁠 때 그 이웃이 품을 빌려 주는 것을 자발적 협동이라고 할 때, 농촌의 품앗이 전통이나 관혼상제의 상부상조는 전통적 협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계약적 협동은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 간에 계약의 형태로 행하는 협동을 말하며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협동의 목적과 방법 및 조건을 명시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동의 형태다. 지시에 의한 협동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

하는 노동자들 간의 작업 협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2.3. 경쟁(competition)

경쟁은 동시에 성취할 수 없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사이 또는 집단 간에 그것을 성취하고자 서로 노력하는 선의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말한다. 선의의 경쟁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전제로 해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경쟁을 통하여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농촌 마을 사회에서의 경쟁으로 이웃 간의 생산성 경쟁, 품질 경쟁, 소득 경쟁, 저축 경쟁 등을 들 수 있으며 마을 간의 경쟁으로 축구 시합 등 운동경기, 문화축제 등에서의 경쟁이 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마을은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저축성과를 올리도록 독려하게 되어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2.4. 갈등(conflict)

갈등은 제한된 기회나 자원을 둘러싸고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 또는 집단들이 서로 대립하는 사회적 행태를 말한다. 갈등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하거나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대내적으로 그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해 주거나 규범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갈등은 모든 사회조직에 잠재적이든 현시적이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갈등을 각 이해 당사자들이 잘 조정하여 해소시킬 수 있다면 갈등은 오히려 집단의 화합과 단결을 촉진할 수 있다. 농업용수 이용을 둘러싼 마을 간 갈등은 발생 순간에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 원만한 합의 조정을 통하여 마을 간에 물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규칙 제정을 통하여 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의 가설적 설정

사회자본의 개념이 추상적일수록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의 기초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측정이 가능한 지표(indicator)를 설정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변수는 행위 지향적이다. 따라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도 역시 행위 지향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1. 가설적 지표와 지표의 구성 요소

2.1.1. 사회적 교환과 보상

사회적 교환과 보상이란 사람과 사람 간에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주고받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교환은 한 사람이 사회집단에 가입했을 때 얻게 되는 권리와 지켜야 하는 의무, 즉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단체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의무를 다하고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을 사회적 교환과 보상으로 정의한다.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다. 마을의 공동체 집단일 경우, 대부분 공동자산이나 기금을 지니고 있으므로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마을 주민 1인의 권리에 상응하는 만큼의 경제적 대가를 단체에 지불해야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규범은 어촌마을이나 산촌마을과 같이 어장이나 공동산림이 마을의 공동자산일 경우 흔히 나타나게 되며, 마을의 공동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가 지불과 의무가 강하게 나타난다.

마을의 공동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 회원 가입을 막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마을 공동 어장의 생산성이 제한되어 추가 회원이 가입하면 기존의 회원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어촌마을이 아니라도 공동자산이 많아 추가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공동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수월한 편이다.

여기서 회원이 누리는 혜택은 회원의 자격 획득, 회원 자격 획득에 따른 사회적 인정과 신뢰 획득, 단체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위세와 영향력 획득,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 집합에 대한 접근성 확보, 교육 기회 획득, 단체가 지니고 있는 공동자산이나 자원에의 접근성 확보, 단체 회원으로서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교환과 보상의 개념을 감안할 때, 사회적 교환과 보상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단체의 회원이 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지위 향상, 신뢰 증진, 접근성 향상, 동기 부여, 규범 준수 혹은 집단에 대한 사랑이나 충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을 지표로 설정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지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지표의 구성요소(indicator component: IC)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 단체의 성격

① 회원 가입의 자율성

- 자율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회원으로 가입했는지의 여부
-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② 회원 자격의 개방성

- 회원 자격이 개방되어 있는지 혹은 성별, 성씨, 연령 및 특정 조건을 갖춘 특정 계층에만 허용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 회원 가입비 및 회비 납부

- 회원 가입을 위해 단체가 지니고 있는 공동자산에 상응하는 가입금을 납부하는가? 그리고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가?

④ 집단의 목적

- 집단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집단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나. 지위 향상

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본인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② 사회 활동 확대

- 회원이 된 이후 경제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증진되었는가?

다. 신뢰 증진

① 동료로부터의 신뢰 증진

-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나에 대한 동료들, 혹은 외부 인사들의 신뢰가 향상되었는가?

② 동료에 대한 신뢰 증진

- 회원이 된 이후 내가 동료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는가?

③ 집단에 대한 신뢰 증진

- 회원이 된 이후 집단에 대한 나의 신뢰가 더욱 증진되었는가?

라. 접근성 향상

- ① 기술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 회원이 된 이후 집단을 통해서 기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거나 향상되었는가?
- ② 정보 이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회원이 된 이후 유통 정보 등 영농이나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었는가?
- ③ 자원 이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회원이 된 이후 토지, 공동어장, 공동산림, 공동기금 등 단체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이용 기회가 허용되거나 증진되었는가?
- ④ 금융 자금 이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회원이 된 이후 단체 활동과 관련된 금융이용 기회가 증진되었는가?
- 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회원이 된 이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명망 있는 인사들을 만나는 기회가 증대되었는가?

마. 동기 부여

- ① 단체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
 - 회원이 된 이후 동료들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었는가?
- ②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
 - 회원이 된 이후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동기가 부여되었는가?

바. 규범 준수

- ① 제반 규정 준수
 - 집단이 정한 각종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가?
- ② 회비 납입 의무 준수
 - 회비 납부의 의무를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 ③ 회의 참석 의무 준수
 - 회의 참석 등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 ④ 벌칙에 대한 이해 정도
 - 집단의 규율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집단이 정한 벌칙에 대해 이의가 없는가?

2.2. 협동

협동은 모든 사회조직의 존립 기반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마을 지역사회에서 품앗이는 이웃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적 협동의 메커니즘이다. 내가 이웃에 일손을 빌려 주면 다음에 그 이웃이 같은 양의 일손을 내게 빌려 줄 것이 기대될 때, 품앗이는 형성된다.

대동계, 상사계, 수리계, 친목계 등 공식적인 사회집단도 모두 집단의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마을 사회에 조직된 여러 계 조직의 공동 기금조성, 애경사에 현금 및 현물 지원, 노동력 지원, 공동 노동력 출력 등은 모두 협동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이다.

대동계는 마을의 공동 시설 건립을 위하여 구성원들로부터 기금을 각출하고 노동력 제공을 요구한다. 상사계나 혼사계는 장례와 혼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하여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계원들에게 상사와 혼사가 발생했을 때 계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현금 혹은 현물 지

원을 하며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용수는 개인의 힘만으로 공급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으로 노동력을 동원하여 보(洑)를 막고 용수로를 만들며 공동으로 물 관리를 하게 된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은 몇 가지의 예일 뿐이다. 농촌 지역 주민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본능적으로 계와 같은 집단을 조직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농촌 지역사회에서 협동은 우리의 사회문화 속에 내재된 배태적인 요소로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이상의 협동의 개념을 감안할 때, 협동 분야의 사회자본은 회원의 협동 활동 참여, 협동에 대한 의무감, 협동 활동에 대한 만족감, 협동을 통한 단결력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개념을 지표화할 수 있으며 이들 지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 구성 요소(indicator component)를 설정할 수 있다.

가. 협동 활동 참여

- ① 애경사 때 노동력 지원 여부
 - 애경사 때, 혹은 영농 활동이나 공동 행사에 집단이 정한 규정 혹은 관례에 따라서 이웃 혹은 단체 구성원들과 노동력 교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 ② 애경사 때 현금 지원 여부
 - 집단이 정한 규정 혹은 관례에 따라서 이웃 혹은 집단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현금 지원을 주고받는가?
- ③ 회의 참석 정도
 - 집단의 활동과 관련된 공식적, 비공식적 회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 ④ 공동 활동 참여 정도

- 집단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공동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⑤ 친목 행사 참여 정도

- 집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원 간의 친목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가?

나. 협동에 대한 의무감

① 애경사 때 노동력 지원에 대한 의무감

- 집단 회원 간의 애경사에 노동력 제공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가?

② 단체 활동과 관련된 노동력 교환에 대한 의무감

- 집단 회원 간에 집단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노동력 교환이나 의무적인 제공 등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가?

③ 애경사 때 현금 지원에 대한 의무감

- 단체 회원의 애경사 때 회원 간의 현금 지원이나 부조와 같은 상부상조 활동에 대한 의무감

④ 회의 참석에 대한 의무감

⑤ 공동 활동 참석에 대한 의무감

⑥ 친목활동 참석에 대한 의무감

다. 협동 활동에 대한 만족감

① 애경사 때 노동력 교환에 대한 만족감

- 애경사 때 혹은 집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원 간에 노동력을 지원해 주고받은 협동 활동에 대한 만족감

② 애경사 때 현금 지원에 대한 만족감

- 애경사 때 혹은 집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회원 간에 주고받은 현금 지원에 대한 만족감

③ 회의 참석에 대한 만족감

- 집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한 회의 참석에 대한 만족감

④ 공동 활동 참석에 대한 만족감

-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활동 참석에 대한 만족감

라. 협동을 통한 단결력

① 회원 정체성

-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신의 정체성 인지와 그 만족도

② 집단 정체성

- 집단 활동에 대한 정체성 인지와 그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데에 대한 만족도

③ 집단에 대한 충성도

- 집단의 존립과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자신의 기여에 대한 열정, 실천 정도

2.3. 경쟁

경쟁은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 경쟁이 없다면 사회나 집단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집단의 경쟁은 집단은 물론 그 구성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작목반의 경우, 모든 회원이 각자 생산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시장에 판매한다면 그 단체는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소득과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경쟁심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정한 규정에 의해 구성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작목반원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 공동선별을 실시하고 생산물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의해서 생산물에 대한 판매 대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기준과 규정은 작목반 구성원들이 더욱 높은 등급을 받아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경쟁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매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다면 이는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목반 활동에 있어서 작목반원의 매출 총액의 일정 부분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기여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면 이는 작목반원들의 매출액 경쟁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에서 집단 구성원의 경쟁은 농산물의 품질 경쟁, 생산성 경쟁, 지도력 경쟁, 사회적 지위 향상 경쟁 등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을 지표화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표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 품질 경쟁

- ① 품질 향상을 위한 타인과의 경쟁심
 - 집단 내 구성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 등급을 올리려는 경쟁심이 있는가?
 - 타 집단과 품질 경쟁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 ② 품질 향상 경쟁을 위한 자신의 노력
 -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 교육에 참석하거나 학습을 하는 등 노력을 하는가?
 - 타인의 고급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묻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 ③ 품질 향상 경쟁을 위한 집단의 노력

- 품질 향상을 위해 집단이 기술교육 또는 워크숍 등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④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제도의 효율성

- 집단 내 구성원의 품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있거나 이에 따른 보상제도가 있는가?
-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나. 생산성 경쟁

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타인에 대한 경쟁심

- 집단 내 구성원들이 생산성을 올리려는 경쟁심이 있는가?
- 타 집단과 생산성 향상 경쟁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② 생산성 경쟁을 위한 자신의 노력

-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 교육에 참석하거나 학습을 하는 등 노력을 하는가?
-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고급 기술을 습득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③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제도의 효율성

- 집단 구성원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제도의 효율성
- 타 집단과의 생산성 향상 경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있거나 이에 따른 보상제도가 있는가?

다. 지도력 경쟁

① 조직관리에 대한 관심도

- 집단을 보다 잘 이끌려는 관심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 ② 지도자 육성 훈련 프로그램 참여
 -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가?
 - 집단이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훈련에 참여시키는가?
- ③ 지도자 후보 참여
 - 집단의 지도자를 추대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가?
 - 집단의 지도자 선발을 위한 후보자로 나선 경험이 있는가?
- ④ 외부 집단과의 영향력 확보 경쟁
 - 시장 확보 혹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집단과 영향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가?

라. 지위 향상 경쟁

- ① 소득 경쟁
 - 집단 구성원 간에 다른 회원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원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가?
 - 집단 구성원들의 잘살기 위한 노력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경쟁으로 나타나는가?
- ② 자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경쟁이 자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 ③ 집단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활성화에 영향이 있는가?

2.4. 갈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집단이 정한 규범이나 규정, 다른 구성원과의 이념이나 사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잠재적인 것이어서 마음 속으로만 내연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현재화되어 격심한 갈등으로 표

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만과 갈등이 적절하게 사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해소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 해소 메커니즘이 없다면 혼돈과 분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농촌 지역사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불만이나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이나 갈등은 대화로서 해결할 수도 있고, 격심한 갈등을 겪고 나서 제도화되어 사회의 한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한번 해소되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그리고 해소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야 사회는 갈등을 토대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농촌 지역사회, 특히 마을 지역사회의 사회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구분해 측정할 수 있다. 경제적 갈등은 집단이 생산한 이익의 분배와 경비의 분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이 공제액의 일정액이 작목반으로 환원된다. 이 과정에서 환원된 수수료를 둘러싸고 분배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 생산물을 출하할 경우 생산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운송비를 회원이 분담할 경우 비용의 분담을 둘러싸고 불만이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예는 수리계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리계는 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물이 부족한 해에는 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의 분담은 수세의 분담, 수리계 간부들의 대외 활동비용을 회원이 분담하게 될 경우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갈등은 집단 간부들의 지도력이나 영향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장의 판매처 선정과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구성원들로부터 손실 보상이나 지도력 교체 등 지도력 유지에 강력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대동계, 수리계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도자의 결정이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득실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에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 집단에서 지도력에 대한 정치적 갈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집단의 지도자는 연장자 순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상례다(정기환 등 1987).

이념적 갈등의 경우는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경우다. 그러나 최근에 농촌 지역 주민의 사회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차 증가될 수 있다. 즉, 환경, 생태 등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나 환경 및 생태계 보존에 활동의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서 보통의 방법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이와 같은 단체에 가입했을 경우, 그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이들 집단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이념들과 다를 수 있다.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지닌 이념과 다를 경우, 이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반대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즉, 환경보존이나 농약으로부터의 중독, 혹은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작목반의 일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그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농약 재배나 저농약 농산물의 생산을 고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다수확 중심의 작목반 활동을 고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활동하는 작목반의 운영상 이념과 가치관에 대해서 환경을 중시하는 회원은 심한 이념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집단 구성원의 갈등을 경제적 이해 갈등, 정치적 이해 갈등, 이념적 이해 갈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표화하고 각 지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 구성 요소(indicator component)를 설정할 수 있다.

가. 경제적 갈등

- ① 경제적 이해에 대한 잠재적 불만
 -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이 발생시킨 이익의 분배나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불만을 느끼는가?
- ② 경제적 이해의 잠재적 갈등 해소 방안
 - 경제적 이해에 대한 잠재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 잠재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있다면 효과적인가?
- ③ 경제적 이해에 대한 현재화된 갈등
 - 집단구성원들이 집단이 발생시킨 이익의 분배나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느끼는 불만이 현재화되어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④ 경제적 이해의 현재화된 갈등 해소 방안
 - 표출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가 작동되고 있는가?
- ⑤ 갈등 해소 후 대안 마련
 - 갈등 해소 후 대안이 마련되었는가?
 - 갈등 해소 후 대안에 만족하는가?

나. 정치적 갈등

- ① 정치적 이해에 대한 잠재적 갈등

- 지도자의 집단 의사 결정이나 집단의 운영 방침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 ② 정치적 이해의 잠재적 갈등 해소 방안
 - 지도자가 결정한 방침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불만을 해소하는가?
- ③ 정치적 이해에 대한 현재화된 갈등
 - 지도자의 결정이나 방침에 대한 불만이 갈등으로 표출되어 분쟁을 겪고 있는가?
- ④ 정치적 이해의 현재화된 갈등 해소 방안
 - 지도자와의 갈등이 분쟁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⑤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후 대안 마련
 - 이와 같은 갈등은 해소되었는가?
 - 갈등 해소 방안은 집단간의 규율로 정착되어 이와 같은 갈등의 재연을 막고 있는가?

다. 이념적 갈등

- ① 이념적 이해에 대한 잠재적 갈등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이념에 대해 동의하고 이의 없이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집단의 이념이 나와 상충되어 불만스러워하고 있는가?
 -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이념이나 가치관이 상이하여 불만이 나타나지 않는가?
- ② 이념적 이해의 잠재적 갈등 해소 방안
 -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이념이나 가치관이 상이하여 불만이 나타난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가?
- ③ 이념적 이해에 대한 현재화된 갈등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가 나와 상충되어 갈등이 현저하고 탈퇴 등을 고려하고 있는가?
 -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이념이나 가치관이 상이하여 갈등이 표출되어 집단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가?
- ④ 정치적 이해의 현재화된 갈등 해소 방안
- 집단이나 다른 구성원과의 이념이나 가치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는가?
- ⑤ 이념적 이해의 현재화된 갈등 해소 여부
- 집단이나 다른 구성원과의 이념이나 가치관의 갈등은 해소되었는가?
 - 집단이나 다른 구성원과의 이념이나 가치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집단 활동 지속에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가?
- ⑥ 이념적 이해 갈등의 해소 후 대안 마련
- 이념이나 가치관의 갈등이 해소되어 대안이 마련되었으며 집단의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3. 지표의 가설적 설정

이 연구에서는 나라얀과 캐시디가 활용했던 지표 설정을 위한 분석틀의 결과(2001)를 원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는 그가 사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가정했던 4개의 변수, 즉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을 주 변수로 사용한다. 그리고 각 변수의 개념에 따라서 각각 4~6개의 하위 변수를 설정한 다음 측정 가능한 지표를 가설적으로 설정하였다.

3.1. 사회적 교환과 보상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5개의 가설적 지표와 15개의 지표 구성요소를 <표 3-1>과 같이 설정하였다.¹²

표 3-1.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지 표	지표 구성 요소
1-1. 지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사회 활동의 확장
1-2. 신뢰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로부터의 신뢰 ○ 동료에 대한 신뢰
1-3. 상부 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경사 때 노동력 지원 ○ 애경사 때 현금이나 현물 지원
1-4.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정보 이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자원 이용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금융 이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외부 전문 인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
1-5. 규범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 규정 준수 의무 ○ 회비 납부 의무 준수 ○ 회의 참석 의무 준수

¹² 사회적 보상과 교환에서 지표로 검토한 ‘단체 성격’의 지표는 사회자본으로 보기 어려워 사회자본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단체 성격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회비납부는 사회자본 지표의 ‘규범’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

3.2. 협동

협동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하여 <표 3-2>와 같이 4개의 가설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14개의 지표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다.

표 3-2. 협동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지 표	지표 구성 요소
2-1. 협동 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교환 ○ 애경사 때 현금 지원 등 상부상조 ○ 공동 활동 참여 ○ 공동 기금 기여금 납부 ○ 회비 납부
2-2. 협동에 대한 의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경사 때 노동력 교환 의무감 ○ 애경사 때 현금지원 의무감 ○ 공동 행사 참여 의무감
2-3. 협동 활동에 대한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경사 때 노동력 교환에 대한 만족감 ○ 애경사 때 현금 지원에 대한 만족감 ○ 공동 활동에 대한 만족감
2-4. 단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정체성 ○ 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 ○ 집단 정체성 및 집단에 대한 충성도

3.3. 경쟁

경쟁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하여 <표 3-3>과 같이 4개의 가설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12개의 지표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다.

표 3-3. 경쟁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지 표	지표 구성 요소
3-1. 품질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향상을 위한 타인과의 경쟁 ○ 품질 향상을 위한 자신의 노력 ○ 품질 향상을 위한 집단의 노력
3-2. 생산성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타인과의 경쟁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신의 노력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단의 노력
3-3. 지도력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리더십 경쟁에 대한 관심도 ○ 지도력 경쟁이 자기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 외부 집단과의 영향력 확보 경쟁
3-4. 지위 향상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경쟁 ○ 소득경쟁이 자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소득경쟁이 집단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3.4. 갈등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 3-4>와 같이 3개의 가설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이로부터 15개의 갈등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다.

표 3-4. 갈등 분야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지 표	지표 구성 요소
4-1. 경제적 이해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해에 대한 잠재적 갈등 ○ 경제적 이해의 잠재적 갈등 해소 ○ 경제적 이해에 대한 현재화된 갈등 ○ 경제적 이해의 현재화된 갈등 해소 ○ 갈등 해소 후 대안의 효율성
4-2. 정치적 이해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이해에 대한 잠재적 갈등 ○ 정치적 이해의 잠재적 갈등 해소 ○ 정치적 이해에 대한 현재화된 갈등 ○ 정치적 이해의 현재화된 갈등 해소 ○ 갈등 해소 후 대안의 효율성
4-3. 이념적 이해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이해에 대한 잠재적 갈등 ○ 정치적 이해의 잠재적 갈등 해소 ○ 정치적 이해에 대한 현재화된 갈등 ○ 정치적 이해의 현재화된 갈등 해소 ○ 갈등 해소 후 대안의 효율성

제 4 장

사회자본 측정 지표의 설정과 측정

1.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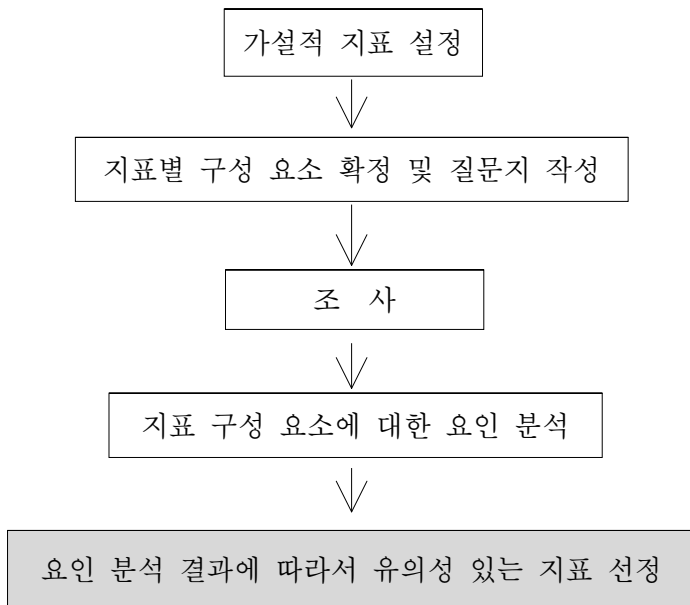
1.1. 지표 개발 절차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3장에서와 같이 이론적 검토를 거쳐 가설적으로 지표를 설정한 다음, 가설적으로 설정된 지표의 유용성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 가설적으로 설정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요소를 작성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질문 문항을 작성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한 다음, 각 지표의 구성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 구성 요소들 간의 결합성을 검토하여 지표의 유의성을 검증했다.

요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요인별로 연관성이 있는 지표 구성 요소들을 묶어 하나의 의미 있는 지표로 선정하였다. 지표 개발 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사회자본 측정 지표 개발 절차



1.2. 지표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1.2.1. 조사 대상

마을 지역사회에는 제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사회집단들이 중층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사회집단 중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사례 연구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작목반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마을 단위에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집단은 수리계와 작목반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수

리계는 이미 행정기관에 통합되어 자치적 사회집단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어 마을 단위에 조직된 작목반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이 적합한 작목반은 우선 조직 수가 많아 유사한 작목반을 유사한 조건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목반 대상으로 쌀 작목반과 딸기 작목반, 그리고 토마토와 수박 등을 검토하였다. 쌀 작목반에 대한 예비 조사는 충남 홍성군과 경기도 안성군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예비 조사 결과는 매우 불만족스럽게도 작목반 간 성과와 운영 방법상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사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딸기 작목반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기술 조건과 역사 및 환경이 유사하면서도 출하 방식과 전략, 품종 선택, 공동기금 조성 등 작목반 운영과 성과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딸기 작목반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논산시를 사례 지역으로 선택하고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로부터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딸기 작목반과 이와 대비되는 작목반을 추천받았다. 부여군 수박 작목반은 딸기와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지는 작목반이라는 점에서 대비군(reference group)으로 추가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 작목반 현황은 <표 4-1>과 같다.

가. 사례 연구 대상 작목반 일반 현황

논산시 광석면의 딸기 작목반은 대부분 1985년경에 광석농협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이 연구의 사례 작목반인 5개 딸기 작목반도 1985년도에 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례 지역의 딸기 작목반은 행정리 단위로 조직된 작목반이다. 그러나 논산시 작목반 중에는 전월일기딸기작목반과 같이 면 단위로 조직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여군의 수박 작목회는 군 단위 조직이다. 작목반원이 군 단위로 조직되기 때문에 작목반원 수도 40명이나 된다.

딸기 작목반 중 항월1리 작목반은 50,000평 규모로 딸기를 재배하는 작목반이다. 반면에 천동1리 작목반과 울리 작목반은 10,000평 미만의 딸기를 재배하는 소규모 작목반이다. 이 지역의 딸기 재배 기술은 논산시 채운면에서 이전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채운면보다 광석면이 재배 규모와 기술 면에서 앞서 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딸기 재배 역사는 천동1리 작목반이 가장 앞서지만 2004년 현재는 항월1리와 항월2리가 재배 규모와 작목반 운영 면에서 앞서 가고 있다.

표 4-1. 사례 작목반의 현황

주소	주작목	조직단위	재배면적	조직 연도	회원수
항월1리	딸기	행정리	50,000평	1985	45
항월2리	딸기	행정리	25,000평	1985	30
천동1리	딸기	행정리	6,000평	1985	32
천동3리	딸기	행정리	1,9000평	1985	20
울리1리	딸기	행정리	8,000평	1985	18
부여군	수박	군	40,000평	1995	40

표 4-2. 사례 작목반 반원의 일반 현황

주소	응답자 개황(평균)					
	반원 수(명)	응답자 수(명)	연령(세)	학력	경지면적(평)	소득(만원)
항월1리	45	39	53	9.0	3,474	2,138
항월2리	30	30	57	6.4	2,956	4,170
천동1리	32	17	56	8.3	3,470	2,429
천동3리	20	15	56	8.5	2,553	2,180
울리 1리	18	13	52	9	2,176	1,592
부여군	40	36	51	8.8	3,730	2,463
계/평균	185	150	54	8.3	3,227	2,612

주: 학력은 수확연수를 의미함.

한편 부여 수박 작목반은 행정기관의 주도로 1995년도에 결성된 비교적 신생 조직이다. 그러나 군 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협동과 유대는 약하다. 작목반원간에 전통적인 상부상조가 일어나지 않으며 노동력 교환과 같은 협동도 작목반보다는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사례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는 총 185명이었으나 150명이 최종적으로 설문지 조사에 응해 주었다. 최종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4세였으며 평균 학교 수학 연수는 8.3년으로 중학교 졸업자 정도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경지면적은 3,227평이었으며 호당 평균 소득은 2,61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작목반 운영

조사 대상 딸기 작목반 중 생산물을 전량 공동출하는 작목반은 항월2리와 천동3리 딸기 작목반이었으며 나머지 작목반은 생산물의 50~70% 정도만 농협공판장이나 상회로 공동출하하고 있었다. 부여의 수박작목회는 수확물을 발매기로 중간 상인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공동 출하의 전통이 없으며 그만큼 협동의 메커니즘도 약하다.

2004년도에 공동 선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작목반은 항월1리뿐이다. 그러나 처음 시도한 제도인 만큼 그 성과는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도에는 농협의 주도로 면 전체 딸기 작목반이 공동 선별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 선별은 공동 출하보다 더욱 선진된 출하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품질을 등급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정한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품질을 등급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작목반 반원들이 익숙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도 현재 공동기금을 가장 많이 적립한 작목반은 항월1리 딸기 작목반으로 4,000만원 정도를 조성했다. 그러나 2년 전까지는 항월1리 딸기 작목반의 기금액은 8,000만원 수준이었다. 이 기금은 2002년도 딸기 농사 실패 보상비로 사용하게 되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¹³ 천동3리 딸기 작목반은 기금을 2,000만원 정도 적립했었으나 작목반의 공동 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비로 1,800만원을 사용하고 난 지금 약 2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한 상태다.

표 4-3. 작목반의 운영 방식

지 역	작목반 운영			
	공동출하 (%)	공동선별 (%)	공동기금액	기금조성 방식
항월1리	70	70	40.0 백만원	환원수수료로 충당
항월2리	100	미착수 (2005년 예정)	20.0 백만원	환원 수수료 중 비용 정산 후 잔액을 적립
천동1리	60	미착수 (2005 예정)	0.5 백만원	필요시 각출
천동3리	100	미착수 (2005년 예정)	2.0 백만원	환원 수수료 중 비용 정산 후 잔액을 적립
율리 1리	50	미착수 (2005년 예정)	2.0 백만원	필요시 각출
부여군	개별 판매	해당 없음	2.0 백만원	필요시 각출

¹³ 항월1리 작목반의 딸기농사 실패는 지도부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가져왔으며 부채 청산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동기금은 이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작목반의 손실 보전이나 작목반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도입에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작목반원들의 기술 교육을 위한 강사 초빙, 기술세미나 개최, 마을 발전 기금 기부, 작목반원의 여행 등 친목 활동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천동1리 딸기 작목반이 가장 적은 공동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공동기금 조성 방식은 대부분 농산물 판매 대금 수수료나 영농자재 환불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중 공동 출하를 위한 유통비용 등을 제한 잔액을 적립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항월1리, 항월2, 천동3리 작목반은 판매대금 환원 수수료 등 수익금 중에서 생산물 출하를 위한 상하차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천동 1리 딸기 작목반은 판매대금 환원 수수료를 비용에 충당하며 잔액이 남는다고 해도 기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개인의 출하 기여율에 따라서 개별 배당으로 분배한다. 이는 작목반원이 생산하는 전체 생산액 중 공동 출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목반원이 환원 수수료를 이용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여 수박 작목회는 공동출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판장으로부터 환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금 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작목반원들이 현금을 각출한다. 2004년도 현재 공동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2백만원 정도에 달한다. 이들은 공동 기금을 작목반원 교육이나 반원 친목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공동기금이 적립된 작목반은 신규 회원을 받아들일 때 입회비를 받는다. 이 입회비는 작목반이 지니고 있는 공동자산의 회원별 지분과 유사한 금액이다. 따라서 공동기금 등 자산을 많이 지니고 있는 작목반일수록 회원의 입회 기회가 단혀 있고 반대로 공동자산이 적

은 작목반일수록 입회 기회는 열려 있다.

1.2.2. 조사표 작성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변수별로 지표를 정하고 각 지표 별로 2~5개의 지표 구성 요소를 정하고 지표 구성 요소별로 사회자본 측정이 가능하도록 질문 문항을 설정하였다. 각 질문은 5점 척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설문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¹⁴

가. 사회적 교환과 보상

- 사회적 교환과 보상은 회원 자격을 획득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도, 횟수, 량, 만족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였다. 즉, 회원 자격 획득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해 참여 정도, 수혜량, 필요성 및 만족도 등을 척도화하였다.
 -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동료간의 신뢰 증진
 - 전통적 상부상조 혜택
 - 토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공동기금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정보 획득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동기부여 등에 기회 제공
 - 사회집단의 규범 준수

¹⁴ 설문지 내용은 부록 I 참조.

나. 협동

- 협동은 행위를 중심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즉, 협동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라는 막연한 개념적인 협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협동의 양, 정도, 필요성,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 노동력 교환 행위를 통한 협동
 - 상부상조 행위를 통한 협동
 - 공동기금 조성 참여를 통한 협동
 - 공동 행사 참여를 통한 협동
 - 집단의 결정 사항 실천을 통한 협동
 -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통한 협동

다. 경쟁

- 경쟁은 마을 내 집단 구성원들이 드러내 놓고 표시하지 않는 속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의 메커니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경쟁의 행위와 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 작목반 활동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공동 출하 등으로 파악하였다.
 - 경쟁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 경쟁, 생산성 경쟁, 소득 경쟁, 지위 향상 경쟁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척도화하였다.

라. 갈등

- 갈등은 잠재적 갈등과 현재화된 갈등을 구분하여 설문서를 작성했으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전망 등을 중심으로 척도화하였다. 특히 갈등은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이해를 중심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의 작동 정도와 노력, 해소 전망 등을 측정하였다.¹⁵

- 집단 내 경제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과 해소 전망을 척도화하였다.
- 경제적, 정치적 이해에 갈등을 집단 내와 집단간 갈등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2.3. 척도 구성

각 항목은 가급적 5점 척도화했으며 가장 낮은 지수를 1로, 가장 높은 지수를 5점으로 환산하여 각 지표의 구성 요소를 대변하는 문항 값의 합을 각 지pont값으로 지수화했다.

1.3. 조사 내용과 방법

1.3.1. 조사 내용

- 6개 작목반의 조직과 운영사항
- 6개 작목반원의 사회자본 조사
 - 조사 대상 작목반원: 6개 작목반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

1.3.2. 조사 방법

가. 작목반 조사

- 연구진이 준비된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농협의 작목반 담당

¹⁵ 이 연구에서는 작목반 활동을 중심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은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직원, 작목반장을 면담하여 조직의 운영 방법과 문제점, 출하 방식, 비용분담과 이익의 배분 등에 대해 조사

나. 작목반원에 대한 사회자본 조사

- 연구진 및 전문 조사원이 직접 작목반원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 조사
- 전화를 이용한 보완 조사

1.4. 결과의 분석 및 지표 설정

1.4.1. 분석 방법

제3장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지표들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주 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기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간에 유의성이 있는 구성 요소들을 묶어서 각 변수를 구성하는 사회자본 지표를 확정하였다.

1.4.2. 분석 결과

가. 사회적 교환과 보상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설적으로 설정된 14개의 지표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의 지표 중 첫 번째 요인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표는 지위 향상과 신뢰와 관련된 지표들로서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은 3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표 간의 유의성은 집단에 가입한 회원이 집단에 가입한 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 활동의 확장 등으로 본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회원 가입 이후 동료에 대한 신뢰나 동료로

부터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다는 가정이 상호 유의성 있게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 이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다른 지표들과는 연계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 사회적 교환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지표 구성 요소	요 인			
	1	2	3	4
1.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0.757	0.172	0.237	0.13
2. 사회경제 활동 확장	0.724	0.262	0.078	0.091
3. 동료회원에게 대한 신뢰 증진	0.811	-0.024	0.1	0.079
4. 동료로부터의 신뢰 증진	0.721	0.087	-0.078	0.329
5. 애경사 때 금전적 혜택	0.135	0.033	0.916	0.116
6. 애경사 때 일손 혜택	0.073	-0.126	0.892	0.045
7.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0.51	0.497	-0.036	0.235
8. 기술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0.107	0.04	0.018	0.744
9. 공동 토지 이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	0.129	0.186	0.48	0.673
10. 공동 기금에 대한 접근성 향상	0.185	0.14	0.059	0.743
11.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기회) 부여	0.402	0.361	0.013	0.533
12. 회의 참석 의무	-0.004	0.642	0.309	0.119
13. 제반 규정 준수 정도	0.268	0.808	-0.226	0.054
14. 규정 준수 의무	0.138	0.861	-0.099	0.179

주: 분석 방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활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요인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4.771	34.079	34.079
2	2.19	15.641	49.720
3	1.377	9.835	59.555
4	1.108	7.914	67.469

두 번째 요인으로는 규범에 관한 지표들로서 두 번째 요인의 설명력은 15.6%였다. 이 지표들은 회원이 규범을 중히 여기고 제반 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며 회의 참석에 대한 의무감도 높을 것이라는 가정이 상호 유의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은 애경사 때 지원하는 노동력이나 금전적 지원 등 상부상조에 관한 지표들로서 세 번째의 요인의 설명력은 9.8%로 나타나고 있다. 애경사 때 노동력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은 특별한 규정 없이도 관행적으로 지켜 온 우리 사회의 전통이며 이러한 사회의 관습이 단체의 운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사계와 같이 사회적 공동체 성격이 강한 사회집단의 경우 노동력 지원이나 현금지원의 정도는 작목반의 경우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 요인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지표들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지표들로서 이에 대한 설명력은 7.9%였다. 자원 이용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지표는 공동 토지나 공동 기금의 활용에 대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이와 같은 성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은 교육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한 기회로서 경제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 집단일수록 지표간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 이용의 경우 네 번째의 요인에서는 유의도가 낮게 나타난다. 다만 정보 이용은 제1요인과 제2요인에서 각각 0.51, 0.497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지표의 요인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위 향상, 신뢰, 규범, 상부상조, 자원에 대한 접근성, 기회에 대한 접근성 등 6개의 지표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협동

협동 분야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4개의 지표와 그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협동 분야의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첫 번째 요인으로는 집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노동력 교환, 애경사 때 상부상조,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및 공동 행사 참여에 관한 지표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요인의 설명력은 39.7%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집단의 지지와 정체성과 관련된 지표와 회의

표 4-5. 협동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요인	
	1	2
1. 집단의 목적을 위한 노동력 교환 정도	0.818	-0.166
2. 집단의 목적을 위한 노동력 교환 만족도	0.798	0.094
3. 애경사 때 현금 지원	0.604	0.4
4. 애경사 때 노동 지원	0.775	0.251
5.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 기금 조성	0.426	0.618
6. 집단의 공동행사 참여	0.437	0.28
7. 집단의 공동행사 필요성	0.535	0.446
8.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긍지	0.323	0.76
9. 집단에 대한 지지	-0.105	0.796
10. 회의 참석 정도	0.086	0.507

주: 분석 방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활용하였으며 각 요인 별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3.971	39.708	39.708
2	1.47	14.705	54.413

참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의 설명력은 14.7%였다. 따라서 노동력 교환, 상부상조, 공동기금조성, 공동 활동 참여, 집단의지지, 회의 참석 등 6개의 지표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쟁

경쟁 분야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4개의 지표와 8개의 지표 구성 요소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협동 분야의 주성분 분석에서 나타난 첫 번째 요인으로는 품질 경쟁 관련 지표로서 36.9%를 설명한다. 협동 분야의 두 번째 요인은

표 4-6. 경쟁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1	2	3
1. 타인과의 품질 경쟁을 위한 자신의 노력	0.834	0.257	-0.035
2. 품질 경쟁을 위한 집단의 노력	0.735	0.202	0.197
3. 타인과의 생산력 경쟁을 위한 자신의 노력	0.68	-0.087	0.426
4. 다른 집단과의 생산력 경쟁을 위한 집단의 노력	0.375	0.061	0.686
5. 타인과의 지도력 경쟁 정도	0.135	-0.039	0.634
6. 타 집단과의 영향력 확보 경쟁 정도	-0.046	0.292	0.746
7. 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경쟁 정도	0.256	0.84	0.106
8. 집단 구성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집단간의 경쟁	0.075	0.893	0.072

주: 분석 방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활용하였으며 각 요인 별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2.949	36.861	36.861
2	1.335	16.691	53.551
3	1.019	12.743	66.295

지위 향상을 위한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경쟁 관련 지표로서 16.7%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생산력 경쟁과 지도력 경쟁 관련 지표들로서 12.7%의 설명력을 지닌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은 기술력 경쟁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력 향상을 위한 경쟁을 제외하는 대신 기술력 경쟁의 개념을 품질 경쟁과 생산성 경쟁으로 이를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품질 경쟁, 생산력 경쟁, 지도력 경쟁, 지위 향상 경쟁의 4개 지표가 유의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갈등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2개의 지표와 8개의 지표 구성요소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갈등 분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분석 결과

사회자본 측정 지표	요인	
	1	2
1. 집단 내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결 노력	-0.02	0.954
2. 집단 내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결 전망	-0.007	0.948
3. 집단 간 정치적 이해의 갈등 해결 노력	0.774	0.454
4. 집단 간 정치적 이해의 갈등 해결 전망	0.452	0.506
5. 집단 내 경제적 이해의 갈등에 대한 해결 노력	0.818	-0.087
6. 집단 내 경제적 이해의 갈등에 대한 해결 전망	0.854	-0.095
7. 집단 간 경제적 이해의 갈등 해결 노력	0.783	0.163
8. 집단 간 경제적 이해의 갈등 해결 전망(NA)		

주: 분석 방법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활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요인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
1	3.152	45.036	45.036
2	1.979	28.268	73.304

갈등 분야의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첫 번째의 요인은 정치적 이해의 갈등 관련 지표들과 경제적 이해의 갈등 관련 지표들이다.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지표 중 집단 간 정치적 이해의 갈등 해결 전망은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2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45.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적 이해의 갈등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제2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2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갈등 분야에서는 집단 내 와 집단간 정치적 이해 갈등과 집단 내와 집단간 경제적 갈등 이해 관련 지표들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요인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는 4개의 변수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가. 사회적 교환과 보상

- 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② 동료간의 신뢰 증진
- ③ 전통적 상부상조 혜택
- ④ 자원(토지, 금융, 기금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¹⁶
- ⑤ 기회(교육, 정보, 동기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⑥ 사회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범 준수

¹⁶ 이 연구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외부 전문 인사와의 교류 폭 확대, 회비 납부 의무에 관한 지표는 조사표 상의 누락으로 검증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검증은 차후 보완 연구에서 더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사회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집단은 토지자원과의 접근성이 해당되기 어려우며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특별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 집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 금융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대부분의 사회집단은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므로 이와 같은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 협동

- ① 동료간의 노동력 교환 행위를 통한 협동
- ② 애경사 때 상부상조 행위를 통한 협동
- ③ 공동기금 조성 참여를 통한 협동
- ④ 공동 행사 참여를 통한 협동
- ⑤ 집단의 결정 사항 실천을 통한 협동
- ⑥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통한 협동

협동과 관련된 사회자본 측정 지표에서도 사회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지표의 적용은 달라져야 한다. 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료간의 노동력 교환은 영농 목적의 집단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에는 집단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품앗이의 성격이 강할 것이다.

다. 경쟁

- ①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
- ② 생산력 향상을 위한 경쟁
- ③ 지도력 확보를 위한 경쟁
- ④ 지위 향상을 위한 경쟁

라. 갈등

갈등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이 6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① 집단 내 경제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 ② 집단 간 경제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전망
- ③ 집단 내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 ④ 집단 간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전망
- ⑤ 집단 내 이념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¹⁷
- ⑥ 집단 간 이념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전망

2. 사회자본 측정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의 사회자본은 설정된 지표에 의해서 측정하여 지수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측정된 지표의 지수를 사회집단 단위의 사회자본이나 변수별 사회자본의 양으로 지수화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집단의 사회자본을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4개의 변수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대 전제

¹⁷ 이 연구에서 이념적 갈등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였지만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자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한 요인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작목반과 같이 작은 조직 속에서 이념적 갈등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도 전국 단위의 사회집단 회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이 지니고 있는 이념성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예는 유기농, 도농교류, 환경운동, 농민단체 활동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 그러나 지표 설정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변수는 하나의 의미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 개념으로 설정된 지표 단위로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각 변수의 집단별 사회자본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2.1. 사회자본 측정 결과

가. 사회적 교환과 보상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의 측정은 설정된 6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두 문항 이상의 설문을 설정하고 이를 5점 척도화하여 지수화했다.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의 사회자본 지수는 공동출하가 잘 되는 항월1리와 천동3리의 딸기 작목반이 각각 4.32와 4.04로 높았고 부여 수박 작목반이 3.71, 울리 딸기 작목반이 3.62, 항월1리 딸기 작목반이 3.48, 천동 1리 딸기 작목반이 3.45로 낮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공동 출하의 유무, 지도부에 대한 신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 출하가 잘 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동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작목반에서는 사회자본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의 6개 지표에서 거의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 지표별로 사회자본의 지수를 살펴보면 사회자본 축적도가 높은 항월2리와 천동3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푼값이 높은 반면 부여 수박 작목회는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뢰 지푼값이 다른 마을의 작목반보다 높았고 상부상조 부문의 지푼값은 낮았다. 이는 수박 작목회 회원이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

표 4-8.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지표별 지수

	사례집단	조사개수	평균 지수
사회적 지위 향상	부여	36	4.17
	율리1리	13	3.81
	천동1리	17	3.65
	천동3리	15	4.40
	항월2리	30	4.43
	항월1리	39	3.86
동료간 신뢰 증진	부여	36	4.19
	율리1리	13	3.81
	천동1리	17	3.59
	천동3리	15	4.10
	항월2리	30	4.50
	항월1리	39	3.88
애경사 때 상부상조	부여	36	3.00
	율리1리	13	3.96
	천동1리	17	3.85
	천동3리	15	4.30
	항월2리	30	4.40
	항월1리	39	3.94
기회에의 접근성	부여	36	3.06
	율리1리	13	2.54
	천동1리	17	2.68
	천동3리	15	3.27
	항월2리	30	3.85
	항월1리	39	2.24
자원예의 접근성	부여	36	3.72
	율리1리	13	3.36
	천동1리	17	3.25
	천동3리	15	3.98
	항월2리	30	4.38
	항월1리	39	3.28
규범 준수 의무	부여	36	4.17
	율리1리	13	4.26
	천동1리	17	3.69
	천동3리	15	4.22
	항월2리	30	4.37
	항월1리	39	3.67
계	부여	36	3.72
	율리1리	13	3.62
	천동1리	17	3.45
	천동3리	15	4.04
	항월2리	30	4.32
	항월1리	39	3.48
	계/평균	150	3.77

그림 4-2.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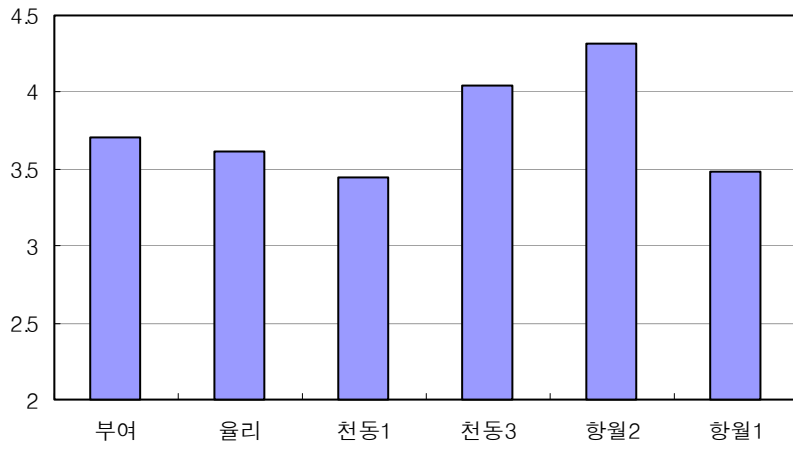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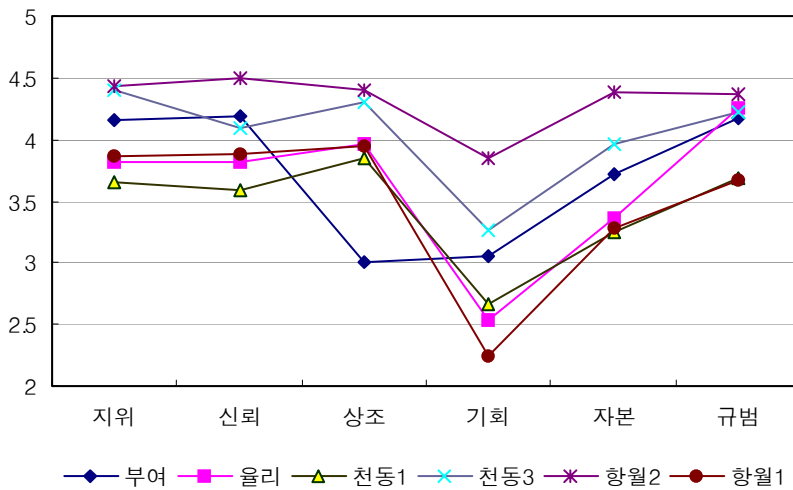


그림 4-3. 사회적 교환과 보상의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표별 지수 추세



어 작목반원 간의 전통적인 상부상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 지수가 낮은 울리와 항월1리 천동 1리의 경우는 특히 기회의 접근성 지표에 대한 사회자본의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항월2리나 천동3리의 경우 작목반 스스로 적극 교육 기회 제공이나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를 감안해 볼 때 작목반 자체의 지도력과 반원들의 필요성 인지와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나. 협동

협동 분야 사회자본은 협동 관련 사회자본 지표 6개를 활용하여 각각 2문항 이상의 설문을 설정하고 각 문항의 답을 5점 척도화하여 지숫값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사회자본 지표별 지숫값은 <표 4-9>와 같다.

협동 분야의 사회자본 중에서 사회자본 지수가 가장 높은 작목반은 항월2리 딸기 작목반으로서 4.4를 나타내고 있고 천동3리 작목반이 그 다음으로 4.2를 나타내고 있다. 부여 수박 작목회는 3.9, 울리 딸기 작목반은 3.8, 항월1리 딸기 작목반은 3.6, 그리고 천동3리 딸기 작목반이 3.6으로 가장 낮았다.

협동 관련 사회자본 지수가 높은 항월2리 작목반의 경우 작목반원들은 노동교환, 상부상조, 공동기금의 조성, 집단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지 및 실천에서 다른 작목반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 행사의 참여에서도 다른 작목반보다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음으로 사회자본 지수가 높은 천동3리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협동 관련 사회자본의 지수가 가장 낮은 작목반의 경우 상부상조, 공동기금의 각출, 작목반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지와 실천, 회의 참석 등에서 사회자본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9. 협동 관련 지표별 지수

	작목반	조사개수	평균 지수
노동교환(만족/중요)	부여	36	3.68
	율리1리	13	3.69
	천동1리	17	4.06
	천동3리	15	4.23
	항월2리	30	4.50
	항월1리	39	4.12
애경사지원(현금/노동)	부여	36	3.65
	율리1리	13	4.04
	천동1리	17	3.79
	천동3리	15	4.30
	항월2리	30	4.50
	항월1리	39	3.90
공동기금조성필요	부여	36	4.14
	율리1리	13	4.00
	천동1리	17	3.35
	천동3리	15	4.13
	항월2리	30	4.60
	항월1리	39	3.79
회의참석정도	부여	36	4.39
	율리1리	13	4.31
	천동1리	17	3.82
	천동3리	15	4.20
	항월2리	30	4.10
	항월1리	39	3.97
공동행사 (필요/참여정도)	부여	36	3.53
	율리1리	13	3.58
	천동1리	17	3.68
	천동3리	15	4.10
	항월2리	30	4.23
	항월1리	39	3.44
단체자랑/지지	부여	36	4.39
	율리1리	13	3.04
	천동1리	17	2.74
	천동3리	15	4.27
	항월2리	30	4.72
	항월1리	39	2.51
계	부여	36	3.96
	율리1리	13	3.78
	천동1리	17	3.57
	천동3리	15	4.21
	항월2리	30	4.44
	항월1리	39	3.62
	계/평균	150	3.93

그림 4-4. 협동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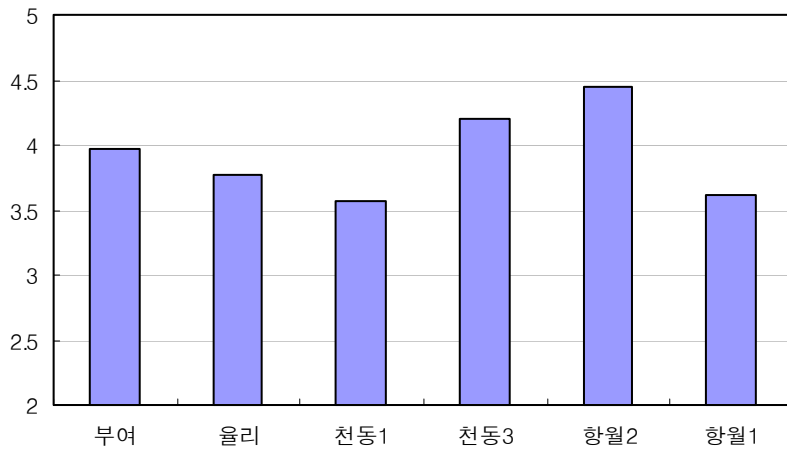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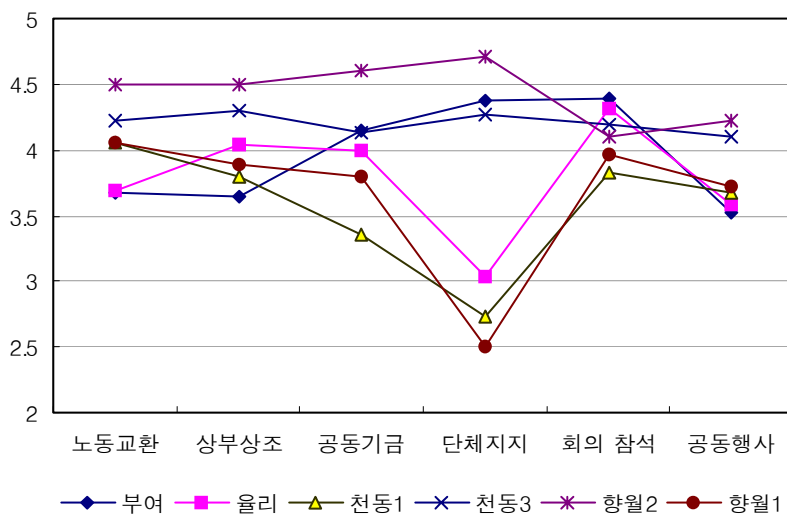


그림 4-5. 협동 관련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표별 지수 추세



다. 경쟁

경쟁 분야 사회자본은 경쟁 관련 사회자본 지표 4개를 활용하여 각각 2문항 이상의 설문을 설정하고 5점 척도화하여 지숫값을 구하였다. 경쟁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 활용된 지표는 품질 경쟁, 생산력 경쟁, 지도력 경쟁, 사회적 지위 경쟁이며 각 지표별로 경쟁 행위를 나타내는 2문항의 값을 지수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쟁 관련 사회자본 지표별 지숫값은 <표 4-10>과 같다.

경쟁 분야 사회자본의 지수가 가장 높은 작목반은 부여 수박 작목반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항월2리, 천동3리, 그리고 울리와 항월1리, 천동 1리의 딸기 작목반 순으로 경쟁 분야 사회자본의 지수가 낮았다.

경쟁 관련 사회자본 지표별 사회자본의 지수 정도를 살펴보면 경쟁 관련 사회자본 지수가 높은 항월2리 딸기 작목반의 경우 품질 경쟁과 생산력 경쟁에서 지수가 높았고 지도력 경쟁이나 지위 향상을 위한 경쟁에서는 중간 정도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으로 사회자본 지수가 높은 천동3리 딸기 작목반과 부여 수박 작목회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부여 수박 작목회는 지도력 경쟁에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작목회원들의 연령이 다른 작목반에 비해 젊고, 작목회 회원이 수개 마을에 흩어져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지도력에 대한 경쟁의 실체가 마을 내의 집단에서 보다 쉽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여 수박 작목회 다음으로 지도력에 대한 경쟁 지수가 높은 작목반은 천동3리와 항월2리 작목반이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에 대해 낮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도력 확보를 통해 조직 운영과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 분야 사회자본 지수가 낮은 항월1리, 울리, 천동1리 딸기 작목반은 품질

표 4-10. 경쟁 관련 지표별 지수

경쟁 관련 사회자본 지표	작목반	조사개수	평균 지수
품질 경쟁	부여	36	4.15
	울리1리	13	3.96
	천동1리	17	3.59
	천동3리	15	4.10
	항월2리	30	4.27
	항월1리	39	3.96
생산 경쟁	부여	36	3.81
	울리1리	13	3.15
	천동1리	17	3.24
	천동3리	15	3.83
	항월2리	30	4.17
	항월1리	39	3.10
지도력 경쟁	부여	36	3.17
	울리1리	13	2.27
	천동1리	17	2.15
	천동3리	15	2.83
	항월2리	30	2.63
	항월1리	39	2.27
지위 향상 경쟁	부여	36	3.79
	울리1리	13	3.69
	천동1리	17	3.50
	천동3리	15	3.83
	항월2리	30	3.63
	항월1리	39	3.68
계	부여	36	3.73
	울리1리	13	3.27
	천동1리	17	3.12
	천동3리	15	3.65
	항월2리	30	3.68
	항월1리	39	3.25
	계/평균		3.48

그림 4-6. 경쟁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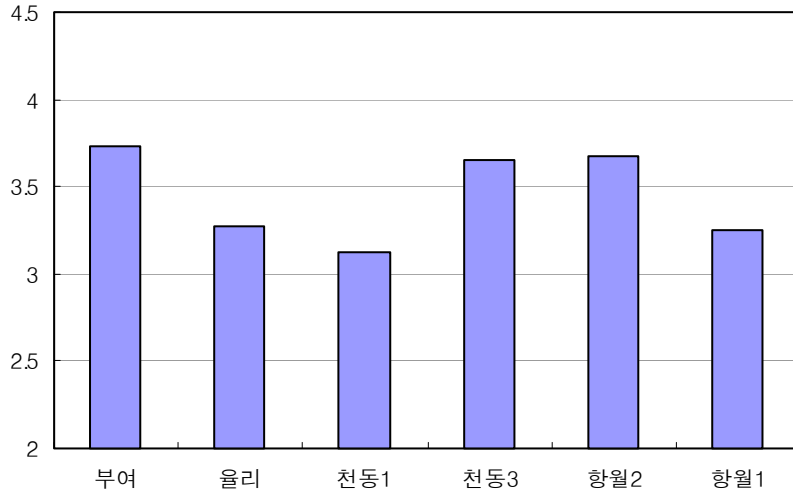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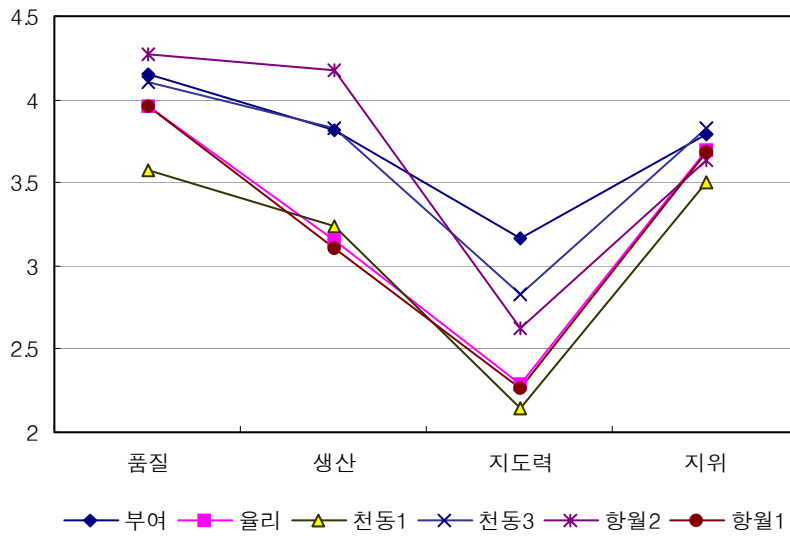


그림 4-7. 경쟁 분야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수 추세



과 생산력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분야의 사회 지표에서도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라. 갈등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은 다른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과 마찬가지로 갈등 분야 사회자본 지표 4개를 활용하여 각각 2문항 이상의 설문을 설정하고 5점 척도화하여 지숫값을 구하였다.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은 근본적으로 집단의 갈등 해소 능력에서 찾으려 했다. 따라서 갈등 해소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갈등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며 갈등 해소 분야 사회자본 지수가 높은 것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웠다. 따라서 갈등을 잠재적 갈등과 현재화된 갈등으로 나누고 이러한 갈등의 유무와 정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전망 등을 묻는 설문을 설정하였으며 갈등 분야에서 사회자본은 갈등 해소의 메커니즘 유무와 갈등 해소 노력의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갈등의 해소 노력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작목반은 천동 1리 딸기 작목반과 울리 딸기 작목반이다. 두 작목반이 협동 분야 사회자본 값이 가장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동과 갈등의 관계는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동3리 딸기 작목반도 갈등 해소의 노력을 위한 사회자본 값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분야에서 사회자본의 값이 높았던 항월2리 딸기 작목반과 부여의 수박 작목반의 경우는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자본의 값이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숫값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6개의 작목반에서 나타난 갈등 현상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울리 딸기 작목반의 경

표 4-11. 갈등 관련 지표별 지수

사회자본 측정 지표	작목반	조사개수	평균 지수
집단 내 정치적 이해 갈등	부여	36	3.00
	율리1리	13	3.00
	천동1리	17	3.0
	천동3리	15	3.23
	항월2리	30	3.00
	항월1리	39	3.00
집단간 정치적 이해 갈등	부여	36	3.08
	율리1리	13	3.31
	천동1리	17	3.18
	천동3리	15	3.23
	항월2리	30	3.05
	항월1리	39	3.08
집단 내 경제적 이해 갈등	부여	36	3.00
	율리1리	13	3.23
	천동1리	17	3.26
	천동3리	15	3.00
	항월2리	30	3.00
	항월1리	39	3.0385
집단간 경제적 이해 갈등	부여	36	3
	율리1리	13	3.0769
	천동1리	17	3.2353
	천동3리	15	3.0667
	항월2리	30	3
	항월1리	39	3.10
계	부여	36	3.02
	율리1리	13	3.15
	천동1리	17	3.17
	천동3리	15	3.13
	항월2리	30	3.01
	항월1리	39	3.05
	계/평균	150	3.07

그림 4-8. 갈등 분야 사회자본 지수의 작목반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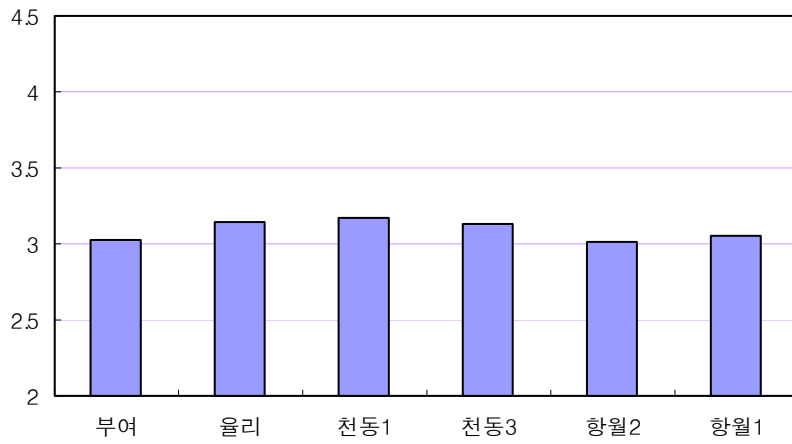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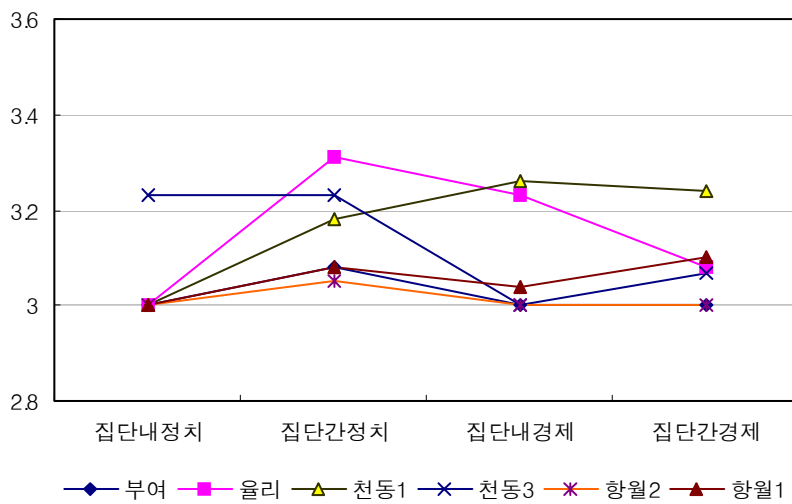


그림 4-9. 갈등 분야 작목반별 사회자본 지수 추세



우 집단간 정치적 이해와 집단 내 경제적 이해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천동 1리 딸기 작목반의 경우는 집단 내 경제적 이해와 집단간 경제적 이해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자본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천동3리 딸기 작목반의 경우는 집단 내 정치적 이해와 집단간 정치적 이해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자본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협동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에서 높은 사회자본 값을 보여 주었던 항월2리와 부여 수박 작목반 그리고 항월 1리의 딸기 작목반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자본 값은 높지 않았다.

3. 사회자본과 집단 성과와의 관계

3.1. 사회자본은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가?

사회자본은 사회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가? 기존의 연구는 집단에 축적된 사회자본이 그 구성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분야에서 나라안과 프리젯은 탄자니아의 전국적인 사회자본 및 빈곤조사(social capital and poverty survey)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많이 축적한 지역사회의 주민이 그러하지 못한 지역사회 주민보다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회자본이 그 구성원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은 이미 제2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퍼트남은 미국의 예를 들어 사회자본의 축적이 많은 주(state)는 그러하지 못한 주에 비해 빈곤율이나 실업률 등이 월등히 낮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들어 사회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퍼트남이 사용한 지표는 주민의 단체 가입률, 신문 구독률 등이다. 연구의 방향에서 본다면 이 연구는 퍼트남의 연구 방향과 유사하다. 사회자본의 축적이 높은 집단이 그러하지 못한 집단보다 더 발전하게 된다는 가정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주민의 시민단체 가입률이나 신문 구독률이 사회자본의 지표로 될 수 있는가? 2003년도 필자의 연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체 가입 그 자체가 사회자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즉 사회자본은 단체에 가입하는 반대급부로 보상이나 혜택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 활동이 일어나고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이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을 때 그러한 행위 또는 태도가 집단 내에서 사회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그 사회자본의 양이 집단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맞아야 사회자본의 축적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전국 자료와 같은 사회자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이와 같은 대량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을 입증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사례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공동출하 비율이 높은 작목반이 사회자본의 축적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동출하라고 하는 집단의 성과가 사회자본의 축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연구의 사례 연구 대상 중에서 사회자본의 축적도가 높은 항월2리와 천동3리 딸기 작목반은 생산물의 전량을 공동출하하는 집단으로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분야의 사회자본 지수가 특히 높았다.

이 연구는 또 다른 점에서 두 가지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나는 단체의 사회자본 축적이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체의 사회자본 축적이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작목반원의 소득과 작목반의 활동이 반원들의 일상생활 활동에서 가지는 중요도는 설문서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 두 가지 분석 모두 집단이 지닌 사회자본이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자료로서 미흡하지만 이 연구는 작목반이 축적한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구성원의 소득과 일상생활에서의 중요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나라안과 프리켓의 연구와 다르다. 작목반 구성원의 소득과 작목반 활동의 구성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요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이 표는 작목반 구성원의 소득은 사회적 교환과 보상과 협동 관련 사회자본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활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분야의 사회자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자본은 구성원의 소득과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사회자본과 작목반 구성원의 소득과 일상생활활동과의 상관관계

	사회자본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
일상생활 활동	.703(**)	.610(**)	.443(**)	0.142
영농소득	.344(**)	.321(**)	0.145	-0.07

주: ** <0.01

3.2. 작목반 구성원의 소득과 사회자본의 관계

작목반원의 소득을 종속변인으로 보고 사회자본, 즉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작목반원의 소득을 사회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13.7% 정도로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작목반 구성원의 소득이 작목반 활동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작목반원들의 소득은 물리적 자본의 양이나 인적 자원, 시장 조건,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자본에 의한 설명력이 13.7%라는 점은 오히려 고무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및 협동 관련 사회자본이 작목반원들의 소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작목반원의 소득과 사회자본의 관계

독립변인	B	Beta
상수(Constant)	69.364	
사회적교환과보상	1165.518	0.31
협동	430.833	0.125
경쟁	-414.728	-0.112
갈등	-685.824	-0.082

R Square = 0.137

3.3. 작목반원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과 사회자본

소득과 달리 작목반원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서 사회자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목반원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대한 사회자본의 설명력은 51.4%에 달한다.

표 4-14. 작목반원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과 사회자본의 관계

	B	Beta
상수 (Constant)	-2.04	
사회적교환과보상	0.881	0.537
협동	0.234	0.156
경쟁	0.087	0.054
갈등	0.476	0.131

R square = 0.514

일상적인 생활 활동의 절반 이상에 대해 사회자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작목반원들의 소득에 사회자본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13.7%에 불과하다고 해도 작목반원들의 소득 활동은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 및 사회집단 활동을 통해서 획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자본이 작목반원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4. 사회자본 지표 간의 비중

이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자본 측정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작목회원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의 중요도를 종속변인으로 보고 사회자본의 각 변수들이 지니는 지표를 독립변인으로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교환과 보상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의 6개 지표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순서는 신뢰,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규범, 기회에 대한 접근성, 자원에 대한 접근성 상부상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일상적 생활 활동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

	B	Beta
(Constant)	-0.31	
지위향상	0.294	0.249
신뢰	0.392	0.335
애경사 때 상부상조	-0.018	-0.017
기회에의 접근성	0.139	0.146
자원에의 접근성	0.075	0.059
규범	0.216	0.223

R Square = 0.57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중요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작목반의 구성 목적이 협동과 규범, 자원이나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협동

협동 분야의 6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목반원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단체의 지지 관련 지표였으

표 4-16. 일상적 생활활동과 협동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

	B	Beta
(Constant)	0.381	
노동교환	0.218	0.193
상부상조	0.177	0.144
공동기금 조성	-0.02	-0.018
회의 참석	0.28	0.255
공동행사	0.066	0.047
단체 지지	0.183	0.342

R Square = 0.41

며 다음으로 회의 참석, 노동력 교환, 애경사 때 상부상조, 공동행사 참석, 공동기금 조성의 순서였다. 이와 같은 순서는 작목반이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공동기금의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례 연구의 한계일 수도 있다. 즉 공동기금의 조성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작목반원들은 스스로 공동기금을 출자해서 조성했다기보다는 농산물 출하 수수료, 영농자재 구매 수수료 등의 환원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작목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남는 돈을 적립한 것이므로 공동기금의 필요성이 절실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결과는 조사표의 사실 반영도, 혹은 응답자의 진실한 답변 여부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서 좀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다. 경쟁

경쟁 분야의 4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생산력 경쟁이었고 다음으로 품질 경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7. 일상적 생활활동과 경쟁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

	B	Beta
(Constant)	1056.807	
품질경쟁	458.095	0.153
생산경쟁	604.602	0.252
지도력경쟁	-21.628	-0.009
지위향상경쟁	-650.109	-0.241

R Square = 0.35

그러나 지도력 경쟁이나 지위 향상 관련 지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을 내에서 지도력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 경쟁한다는 것이 비도덕적, 혹은 비생산적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어 추후 연구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

라. 갈등

갈등 분야의 4개 지표 중에서 작목반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집단간 정치적 이해와 집단간 경제적 이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집단 내의 정치적 갈등이나 집단 내의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은 갈등 존재 여부나 갈등 해소 노력 정도보다는 갈등 해소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와 그 성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갈등이 쉽게 해소되거나 갈등이 문제가 안될 경우 그 집단은 갈등 해소 능력 면에서 사회자본의 지수가 높은 것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조사표 작성과 조사 방법 등에서 추후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사회자본은 농촌 주민들의 사

표 4-18. 일상적 생활 활동과 갈등 관련 사회자본의 관계

	B	Beta
(Constant)	2.93	
집단 내 정치적 이해 갈등	-0.015	-0.003
집단간 정치적 이해 갈등	0.169	0.079
집단 내 경제적 이해 갈등	-0.29	-0.108
집단간 경제적 이해 갈등	0.47	0.193

R Square = 0.04

회적 교환과 보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동 활동의 강화와 갈등 해소 그리고 자기 향상과 집단의 발전을 위한 경쟁 활동을 촉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교환과 보상 분야의 사회자본이 축적되면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 증진과 집단 소속에 의한 정체성 확보와 이로 인한 사회적 지위 향상, 규범의 준수,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협동 분야의 사회자본 축적은 회의 참석 등을 통한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 단체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지지와 이의 실천 강화, 노동력 교환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 활동 촉진, 상부상조 활동을 통한 사회적 협동 강화 등이 기대된다.

경쟁 분야의 사회자본 축적은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의한 생산력 경쟁과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로 인해 소득 향상과 집단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갈등 분야의 사회자본 축적은 사회집단의 구성원 간에 존재 할 수 있는 갈등 해소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해소 메커니즘을 정착시켜 집단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의 존재 양태를 파악하고 이를 측정·분석하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와 주민 본위의 자주적인 농촌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자본 측정 지표의 개발과 이를 통한 사회자본의 측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 5 장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가설적으로 설정하고 요인 분석을 통하여 이의 유의성을 분석하였으며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회자본을 측정할 지표의 개발이 미흡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지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사회집단의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지표화했으며 사회집단별로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회자본의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4개의 설명 변수를 설정하고 사회자본 측정 지표를 가설적으로 설정하는 일은 기존 연구의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독자적인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설정한 것이다. 이로부터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설정된 지표의 유의성 검증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를 마감하면서 이 연구에서 설정된 사회자본의 변수와 지표의 유의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이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사회자본의 개념을 행위 중심(action oriented)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4개의 변수를 설정하면서 계속 연구자 자신에게 스스로 던진 의문 중의 하나다. 이 4개의 변수와 그 하위 개념으로 설정된 지표로 사회집단의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집단의 사회자본 축적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1. 사회자본 변수의 유의성

사회자본의 설명 변수로 설정한 4개의 변수로 작목반원의 소득과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작목반원의 소득은 13.7%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었지만 소득이 물적 자본과 기술, 인적 자본, 사회의 경제사회 환경 및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3.7%의 설명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에서 사회자본이 지니는 설명력은 51.4%나 된다는 점이다. 반원들의 사회 활동의 절반 이상에서 사회자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소득 면에서 사회자본이 13.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의 소득 창출 활동은 개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집단 조직원들의 협동과 신뢰, 기회와 자원의 활용,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해서 총체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자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창출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자본 측정 지표의 유의성

사회자본 측정을 위해 논리적으로 설정한 가설적 지표는 요인 분석 결과 매우 의미 있는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5개에서 6개로, 협동 분야의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4개에서 6개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사회자본 측정 지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설정된 지표 구성 요소(indicator component)들도 요인 분석 결과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이 연구가 상정한 사회자본의 4개 변수별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가. 사회적 교환과 보상

- 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② 동료간의 신뢰 증진
- ③ 전통적 상부상조 혜택
- ④ 자원(토지, 금융, 기금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⑤ 기회(교육, 정보, 동기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 ⑥ 사회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범 준수

나. 협동

- ① 동료간의 노동력 교환 행위를 통한 협동

- ② 애경사 때 상부상조 행위를 통한 협동
- ③ 공동기금 조성 참여를 통한 협동
- ④ 공동 행사 참여를 통한 협동
- ⑤ 집단의 결정 사항 실천을 통한 협동
- ⑥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통한 협동

다. 경쟁

- ① 품질 향상을 위한 경쟁
- ② 생산력 향상을 위한 경쟁
- ③ 지도력 확보를 위한 경쟁
- ④ 지위 향상을 위한 경쟁

라. 갈등

- ① 집단 내 경제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 ② 집단 간 경제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전망
- ③ 집단 내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 ④ 집단 간 정치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전망
- ⑤ 집단 내 이념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노력
- ⑥ 집단 간 이념적 이해에 대한 갈등 해소 전망

이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와 지표 및 지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아직 가설 수준이다. 이 연구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검증 과정을 거쳐 더욱 정교한 지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자본 측정값의 유의성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를 통하여 측정한 사회자본 값은 집단간

에, 그리고 변수 간에 매우 안정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פות값이 집단 상호 간, 그리고 변수 사이에서 안정되게 일관된 추세를 보여 주는 것은 지표의 설정이 정교하게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사회자본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¹⁸

사회자본 측정값은 집단간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동출하 등 집단의 협동 활동이 좋은 작목반에서는 협동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높게 나타났고 이익 배분이나 경영상의 분쟁을 겪거나 지도력이 취약한 작목반에서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이나 협동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낮았던 반면 갈등 관련 사회자본 값이 높았다.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사례 연구의 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재개념화에 의한 변수의 설정과 지표 설정, 사회자본 측정과 유의성 검증 등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자본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4개의 변수와 지표를 마을 단위의 다른 사회집단에 적용하여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보다 정교한 변수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더 넓은 지역

¹⁸ 이러한 것은 지표 설정 과정에서 실시한 ANOVA 테스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모든 지표의 ANOVA 테스트(between group과 within group)에서 F값과 유의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부록 3>.

사회에 적용하여 지역사회 단위로 종합적인 사회자본 값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농촌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자본 조사를 통하여 한국 농촌사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제3차 연도 연구를 남겨 놓고 있다. 3차 연도에서는 마을 단위의 여러 사회집단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부록 1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 농촌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설문서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정기환 (02-3299-4347)

연구원 심재만 (02-3299-4278)

거주지 주소 ()도 ()시/군
()읍/면 ()리

사회단체(작목반)명 : _____

단체 내 지위 ①일반회원 ②집행부(회장, 부회장, 반장, 총무)

I. 단체활동에서 귀하가 겪는 경쟁적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표시하거나 내용을 직접 적어주십시오.

<지위 향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단체에 가입한 것이 귀하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④ 도움이 된 편이다
② 도움이 안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2. 단체 가입 후 귀하의 사회 활동과 경제활동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못하다	④ 넓어진 편이다
② 그렇지 못한 편이다	⑤ 크게 넓어졌다
③ 보통이다	

<신뢰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하가 소속된 단체 회원 동료들을 신뢰합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④ 신뢰하는 편이다
② 신뢰하지 않는다	⑤ 매우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4. 단체에 가입하기 이전과 비교할 때, 귀하는 단체활동에 가입한 후, 이웃이나 동료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④ 신뢰를 더 받는 편이다
- ② 그렇지 못한 편이다 ⑤ 신뢰를 훨씬 더 받는다
- ③ 보통이다

5. 귀하가 가입한 단체의 활동이 귀하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④ 중요한 편이다
-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그저 그렇다)

<접근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지난 3년 동안 귀하의 애경사에 귀하가 속한 단체 회원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일손(노동력)을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7번 문항으로)

6-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3년 동안 귀하는 애경사 때 회원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각각의 괄호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어주십시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0”을 적어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금전적 도움을 ()번, ()원 받음.

지난 3년 동안 일손(노동력) 지원을 ()번 받았음.

6-2.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회원의 금전적 도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④ 만족스런 편이다
- ② 불만족스런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6-3.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회원의 일손 도움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④ 만족스런 편이다
 ② 불만족스런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7. 지난 1년 동안 단체활동을 통해 유통 관련 정보를 접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8번 문항으로)

7-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유통 정보를 접했던 적은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동안 ()번 정보를 접했음

7-2.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단체활동을 통해 접했던 유통 정보는 귀하의 영농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④ 도움이 된 편이다
 ② 도움이 안 되었다 ⑤ 크게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8. 귀하가 소속된 단체에는 공동 토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9번 문항으로)

8-1. (위 문항에서 '① 있다'고 답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단체 소유의 공동 토지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9번 문항으로)

8-1a.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이용한 공동토지는 얼

마나 됩니까?

지난 1년 동안 ()평 이용하였음

8-1b.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공동토지 이용결과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로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④ 만족스런 편이다
- ② 불만족스런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9. 귀하가 소속된 단체에는 공동기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10번 문항으로)

9-1. (위 문항에서 ‘① 있다’고 답한 경우) 공동기금을 조성한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이용하려고
- ② 여행 등 여가활동에 이용하려고
- ③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대출해 주려고
- ④ 종자, 자재 등 생산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고
- ⑤ 기타 : ()

9-2. (위 문항에서 ‘① 있다’고 답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공동기금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0번 문항으로)

9-2a. (위 문항에서 ‘①그렇다’고 답한 경우) 공동기금을 활용하여 지난 1년 동안 다음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각각의 괄호에 참여횟수를 적어주십시오. 참여한 적이 없을 경우는 “0”을 적어주십시오.

- ①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 ()번 참여,
- ② 여행 등 여가활동 : ()번 참여
- ③ 개인적 용도로 대출 : ()번 대출
- ④ 종자, 자재 등 생산자재 구입 : ()번 구입
- ⑤ 기타 활동 : 내용() 횟수()번

10. 귀하가 소속된 단체가 공동기금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불필요하다 ④ 필요한 편이다
- ② 불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11. 단체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덕으로 지난 1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2번 문항으로)

11-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받은 융자는 지난 1년 동안 모두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 동안 약 ()원 융자받았음

11-2.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단체 활동의 혜택으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던 점에 대해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④ 만족스런 편이다
- ② 불만족스런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12. 단체에 가입 한 이후 귀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더욱 열심히

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3번 문항으로)

12-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낮다 ④ 높은 편이다
- ②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 ③ 보통이다

<규범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속한 단체가 가진 정기적·부정기적인 회의는 모두 몇 번이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번 정도의 회의를 가졌음

14.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단체의 정기적·부정기적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였습니까?

- ①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 ② 참석한 적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 ③ 절반 이상은 참석했다
- ④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했다
- 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다

15. 회원으로서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중요치 않다 ④ 중요한 편이다
- ② 중요치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 ③ 보통이다

16. 귀하가 속한 단체는 회원이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7.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단체의 규율을 어느 정도로 따랐습니까?
 ① 지킬 필요가 없어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② 규율을 별로 따르지 않았다
 ③ 다른 사람이 지키는 정도로 규율을 따랐다
 ④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규율을 따랐다
 ⑤ 모든 규율을 충실히 지켰다
18. 회원으로서 단체의 규율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중요치 않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② 중요치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II. 회원으로서 단체활동에서 귀하가 하는 협동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표시하거나 내용을 직접 적어주십시오.

<협동활동(참여도, 의무감, 만족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1년 동안 다른 회원과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2번 문항으로)
- 1-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1년 동안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 동안 총 ()일 정도 노동력을 지원해주고
 총 ()일 정도 노동력을 지원받았음

2. 회원과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④ 만족스런 편이다
 ② 불만족스런 편이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3. 회원과 서로 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치 않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② 중요치 않은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4. 회원 집에 초상이나 혼사와 같은 애경사가 있을 경우, 부조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5번 문항으로)
- 4-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3년 동안 귀하가 회원에게 부조금을 전달한 적은 몇 번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번 부조금을 전달했음
 1회 ()원 정도 전달
5. 애경사가 있을 때, 회원에게 부조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③ 그저 그렇다
7. 회원 집에 애경사가 있을 경우, 일손(노동력)을 보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8번 문항으로)

7-1. 지난 3년 동안 귀하가 회원에게 일손을 지원한 건 몇 번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번 일손을 지원했음
상사시()번, 결혼()번, 기타 경사시()번

8. 애경사가 있을 때, 회원에게 일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③ 그저 그렇다

9.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소속된 단체에 공동기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0번 문항으로)

9-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기금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 ① 농산물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액수: 원)을 공제한다
② 농산물 판매대금에서 일정 비율(비율: 판매액의 %)을 공제한다
③ 농산물 판매대금과 별도로 현금을 각출해 납부한다: 1회 ()원
④ 기타:()

9-2.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원 납부하였음

10. 단체에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 ③ 그저 그렇다

11.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소속된 단체가 행하는 공동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2번 문항으로)

11-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공동행사에 참여한 적은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동안 ()번 참여하였음

노력봉사(), 교육행사(), 친목행사(), 여행(),
농산물 판촉행사(), 기타행사()

12.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 ③ 그저 그렇다

13. 지난 1년 동안 귀하가 소속된 단체가 행하는 친목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4번 문항으로)

13-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친목활동에 참여한 적은 몇 번입니까?

지난 1년 동안 ()번 참여하였음

14. 친목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 ③ 그저 그렇다

<단결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귀하가 현재 속한 단체에 어떻게 가입했습니까?

- ①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④ 나도 모르게 가입되었 다
- ② 동료의 권유로 가입했다 ⑤ 이름만 등록되어 있다
- ③ 회장 등이 강력히 권해서 가입했다

16. 귀하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 ② 부끄럽게 생각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이다
- 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7. 귀하는 회원으로서 단체가 하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참여하고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열악하다 ④ 우수한 편이다
- ② 열악한 편이다 ⑤ 매우 우수하다
- ③ 보통이다

4. 귀하는 다른 집단과의 품질 경쟁이 귀하의 기술 개발이나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생산성 경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다른 회원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얻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6번 문항으로)

5-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 ① 전혀 성과가 없었다 ④ 성과가 있었던 편이다
- ② 성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⑤ 많은 성과가 있었다
- ③ 보통이다

6. 귀하는 회원 간의 매출액 경쟁이 전체적으로 단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7. 다른 단체보다 더 높은 매출액을 얻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8번 문항으로)

7-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노력한 결과 다른 집단 더욱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 ① 매출 향상이 전혀 없었다
- ② 매출 향상이 거의 없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매출이 오른 편이다
- ⑤ 매출이 많이 올랐다

8. 다른 집단과의 매출액 경쟁이 귀하가 소속된 단체의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⑤ 크게 도움이 된다

9. 다른 회원 더욱 뛰어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10번 문항으로)

9-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노력의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성과가 없었다
- ② 성과가 거의 없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성공적인 편이다
- ⑤ 매우 성공적이었다

10. 회원 간의 기술력 경쟁이 귀하의 영농 활동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11. 다른 집단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2번 문항으로)

11-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그 노력의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성과가 없었다 ④ 성공적인 편이다
- ② 성과가 거의 없었다 ⑤ 매우 성공적이었다
- ③ 보통이다

12. 다른 집단과의 기술력 경쟁이 귀하가 속한 단체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지도력 경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회장(반장), 총무 등 단체의 일꾼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4번 문항으로)

- 13-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그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과 얼마나 경쟁했습니까?
- ① 전혀 경쟁하지 않는다 ④ 경쟁이 조금 있는 편이다
 ② 경쟁이 없는 편이다 ⑤ 경쟁이 매우 심하다
 ③ 보통이다
14. 회장과 같은 간부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회원과 경쟁하는 것이 귀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15. 외부 사회에서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집단과 경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6번 문항으로)
- 15-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자 경쟁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경쟁하지 않는다 ④ 경쟁이 조금 있는 편이다
 ② 경쟁이 없는 편이다 ⑤ 경쟁이 매우 심하다
 ③ 보통이다
16. 귀하는 다른 집단과의 영향력 경쟁이 귀하의 발전이나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20. 귀하가 속한 단체 회원이 잘 살기 위해 다른 단체와 경쟁하는 것이 단체의 활동과 성과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 ③ 보통이다

IV. 단체활동에서 귀하가 겪는 다툼이나 분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표시하거나 내용을 직접 적어주십시오.

<정치적 이해 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1년 동안 회장, 총무 등 귀하가 속한 단체의 일꾼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2번 문항으로)
- 1-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일꾼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약하다 ④ 강한 편이다
 - ② 약한 편이다 ⑤ 매우 강하다
 - ③ 보통이다
- 1-2.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 ① 동료의 의견을 묻는다.
 - ② 동료에게 불만을 털어놓는다.
 - ③ 지도자에게 내 의견을 말한다.
 - ④ 지도자에게 불평을 털어놓는다.
 - ⑤ 지도자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 ②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⑤ 아주 잘 해결될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6. 귀하는 이웃 단체와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다툼이나 분쟁이 회원의 단합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경제적 이해 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지난 1년 동안 단체의 이익분배나 비용분담을 놓고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느낀적이 적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8번 문항으로)

- 7-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단체의 이익배분이나 비용분담에 대한 불만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약하다 ④ 강한 편이다
 ② 약한 편이다 ⑤ 매우 강하다
 ③ 보통이다

- 7-2.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① 동료의 의견을 묻는다
 ② 동료에게 불만을 털어 놓는다
 ③ 지도자에게 내 의견을 말한다
 ④ 지도자에게 불평을 털어 놓는다
 ⑤ 지도자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 ②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⑤ 아주 잘 해결될 것이다
- ③ 잘 모르겠다

10.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이익분배나 비용분담을 놓고 다른 단체와 다툼이나 분쟁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예를 들면 물 분쟁 같은 사례)

- ① 그렇다 ② 아니다(☞11번 문항으로)

10-1.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경제적 혜택분배나 비용분담을 둘러싼 다툼이나 분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약하다 ④ 강한 편이다
- ② 약한 편이다 ⑤ 매우 강하다
- ③ 보통이다

10-2.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경제적 혜택분배나 비용분담을 둘러싼 다툼이나 분쟁을 풀기 위해 귀하는 어느 정도로 노력합니까?

- 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④ 노력하는 편이다
- ②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⑤ 많은 노력을 한다
- ③ 보통이다

10-3. (위 문항에서 ‘① 그렇다’고 답한 경우) 경제적 혜택분배나 비용분담을 둘러싼 다툼이나 분쟁은 해소되었습니까?

- ①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 ② 불만이 여전하다
- ③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④ 부족하지만 많이 해소되었다.
- ⑤ 완전히 해소되었다

11. 귀하는 이웃 단체와의 경제적 이익분배나 비용분담을 둘러싼 다툼이나 분쟁이 회원의 단합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②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크게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V.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 표시하거나 내용을 직접 적어주십시오.

1. 연령 : 만 ()세
2.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3. 학력 :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4. 농업종사 연수 : 농업에 종사한 지 모두 ()년 되었음.
5. 사회단체 활동 연수 :
- 현재의 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지 모두 ()년 되었음.
6. 현 거주지 거주 연수 :
- 현재의 거주지에서 살아온 지 모두 ()년 되었음.

7. 영농규모 :

논 ()평, 밭 ()평, 과수원 ()평,
임야 ()평, 기타 ()평
소 ()두, 돼지 ()두, 닭 ()수, 기타 ()

8. 연간 소득

지난 3년 동안 한 해 평균 약 ()원의 조수익을 올렸음.

부록 2

사회집단 현황 조사표

2004. 9

주 소 : _____

사회집단 : ____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집단 조직 연도
2. 조직 배경 및 목적
3. 회원 수
4. 주요 규약 및 규정
 - 가. 회원 가입 절차
 - 나. 가입비
 - 다. 회원이 받는 혜택
 - 라. 공동 기금 및 자산
 - 마. 임원 조직도
 - 회장 및 부회장
 - 총무 및 간사
 - 감사
 - 기타 임원
 - 바.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사. 주요 활동
 - 경제활동
 - 사회문화활동
 - 상부 창조
 - 기타
 - 아. 상벌 규정
 - 회비 미납시
 - 회의 불참 시
 - 기타 규정 미 이행시
 - 자. 회원 명단(설립 당시와 현재 구분)

부록 3

다중회귀분석 결과

ANOVA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지위 향상	Between Groups	11.601	5	2.32	7.409	0
	Within Groups	45.093	144	0.313		
	Total	56.693	149			
신뢰증진	Between Groups	12.292	5	2.458	7.805	0
	Within Groups	45.357	144	0.315		
	Total	57.648	149			
상부상조	Between Groups	38.53	5	7.706	37.234	0
	Within Groups	29.803	144	0.207		
	Total	68.333	149			
기회접근	Between Groups	49.114		9.823	36.707	0
	Within Groups	38.534	144	0.268		
	Total	87.648	149			
자원접근	Between Groups	26.589		5.318	34.38	0
	Within Groups	22.273	144	0.155		
	Total	48.862	149			
규범	Between Groups	12.446		2.489	5.007	0
	Within Groups	71.587	144	0.497		
	Total	84.033	149			
교환과보상 계/평균	Between Groups	15.673		3.135	33.225	0
	Within Groups	13.586	144	0.094		
	Total	29.259	149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노동교환	Between Groups	13.317	5	2.663	7.916	0
	Within Groups	48.451	144	0.336		
	Total	61.768	149			
애경사지원	Between Groups	14.34	5	2.868	10.823	0
	Within Groups	38.16	144	0.265		
	Total	52.5	149			
공동기금/행사	Between Groups	12.305	5	2.461	11.753	0
	Within Groups	30.155	144	0.209		
	Total	42.46	149			
단체차량/지지	Between Groups	22.654	5	4.531	40.289	0
	Within Groups	16.194	144	0.112		
	Total	38.848	149			
사회자본2: 협동	Between Groups	10.692	5	2.138	18.614	0
	Within Groups	16.543	144	0.115		
	Total	27.236	149			
품질경쟁	Between Groups	5.843	5	1.169	4.216	0.001
	Within Groups	39.917	144	0.277		
	Total	45.76	149			
생산경쟁	Between Groups	26.389	5	5.278	16.711	0
	Within Groups	45.48	144	0.316		
	Total	71.868	149			
지도력경쟁	Between Groups	21.587	5	4.317	11.862	0
	Within Groups	52.413	144	0.364		
	Total	74	149			
지위향상경쟁	Between Groups	1.393	5	0.279	0.723	0.607
	Within Groups	55.5	144	0.385		
	Total	56.893	149			
사회자본3: 경쟁	Between Groups	8.624	5	1.725	11.686	0
	Within Groups	21.253	144	0.148		
	Total	29.877	149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집단내정치적 이해갈등	Between Groups	0.735	5	0.147	6.165	0
	Within Groups	3.433	144	0.024		
	Total	4.168	149			
집단간정치적 이해갈등	Between Groups	0.973	5	0.195	1.711	0.136
	Within Groups	16.367	144	0.114		
	Total	17.34	149			
집단내경제적 이해갈등	Between Groups	1.401	5	0.28	4.222	0.001
	Within Groups	9.559	144	0.066		
	Total	10.96	149			
집단간경제적 이해갈등	Between Groups	0.828	5	0.166	1.908	0.097
	Within Groups	12.505	144	0.087		
	Total	13.333	149			
사회지분4: 갈등	Between Groups	0.513	5	0.103	2.715	0.022
	Within Groups	5.444	144	0.038		
	Total	5.957	149			

부록 4

‘꽃개 딸기 작목반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본 작목반의 명칭은 “꽃개 딸기 작목반”(이하 ‘본 작목반’)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작목반은 작목반원간의 화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선별 포장 개선, 유통 개선 등으로 반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반원의 구성 및 의무

- 1) 본 작목반 반원의 구성은 본 작목반의 목적(제2조)을 같이 하며 딸기 영농 활동에 동참하는 회원으로 구성 한다.
- 2) 본 작목반 반원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딸기 생산에 노력하여야 하며, 작목반 운영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임원

본 작목반은 반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2인, 운영위원 8인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1) 반장과 감사는 선출직 임원이며 총무, 재무, 운영위원은 반장이 선임하여 반원의 동의를 얻는다.
- 2) 반장은 작목반을 총괄 대표하며 총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3) 총무는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 유고시 반장을 대신하며 영농 자재 수급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한다.
- 4) 재무는 작목반 기금을 관리하며 총회시 재무 보고 한다.

- 5) 감사는 작목반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한다.
- 6) 운영위원은 영농 지역별 1~2인으로 오산리뜰 2인, 덕평리뜰 2인, 가마뜰1구간 2인, 가마뜰2구간 1인, 풋개뜰 1인으로 구성하며 총무를 보좌 영농자재 수급 및 분배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본 작목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 한다.

- 1) 정기총회(결산총회)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개최하며 임원선출,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경과 보고, 결산 보고 등을 실시한다.
- 2) 임시총회는 딸기 출하 전 또는 작목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3) 임원 회의는 임원(운영위원 포함)이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제6조 의결

본 작목반은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조 중도 가입

본 작목반에 중도 가입시는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될 수 있으며 가입비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반원 자격 상실

- 1) 본인 유고시 또는 영농 불능시 자격이 상실되나 가족의 승계가 가능하다.
- 2) 작목반원 본인이 작목반 탈퇴를 원할시 작목반원 자격을 상실한다.
- 3) 본 작목반의 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거나 작목반 운영에 비협조적인 반원은 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4) 고의 또는 과실로 작목반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는 반원 자격을 상실한다.

- 5) 전 3)항, 4)항의 자격 상실은 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6) 작목반 탈퇴 또는 자격 상실시 자금은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제9조 기금 조성 사용

본 작목반 기금은 수수료 수입, 운임수입, 영농자재 환불금 등으로 조성하며 작목반 운영, 반원의 복지 향상, 기타 마을 및 지역 발전에 사용한다.

제10조 부칙

- 1)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 2) 본 작목반의 규약은 1995년 3월 25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본 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풋개는 항월1리의 다른 이름임.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1982.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김성호 등. 1991. 『농촌 및 농업구조변천에 관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
- 내무부. 1980. 『새마을운동 10년사』.
- 내무부. 1983. 『새마을운동』.
- 농림부. 1972. 『새마을로 가는 길: 박대통령과 농어촌근대화』.
- 농어촌진흥공사. 1995. 『농어촌진흥공사 25년사』.
- 대통령비서실. 1978. 『새마을운동: 박정희대통령연설문선집』.
- 브란트, 빈센트. SR. 1975. 『한국의 촌락』. 김관봉 역. 시사문제연구소.
- _____. SR. 1981.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와 새마을운동.”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소 (편).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 박진도. 1978. “경제개발과 농업: 한국의 1,2,3차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연구』 5(1). 한국농업정책학회.
- 박희봉, 김명환. 2000a.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_____. 2000b.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 양 춘 등. 1986. 『사회학 개론』. 진성사.
- 오내원 등. 2001. 『농외소득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석춘.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 유석춘, 장미혜. 1998. “한국의 비영리, 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0(2).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유석춘, 장미혜, 김태은. 2000. “동아시아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

- 현대』 13(가을).
-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사상』 37.
- 이질현, 로젠. 1981. “새마을운동의 방향.”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 이해준. 1990. “조선후기 동약·향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 연구』. 대우학술총서. 향촌사회연구회 편. 민음사
- 정기환. 2002. “농정조직과 농정 추진체제 개편 방안.” 농어업특위 발표자료. 미발간.
- 정기환, 문순철. 1999. 『농촌인구과소화지역의 유형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 최양부, 민상기. 1988. 『마을사회집단의 조직과 변천: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구』. 연구보고서 M1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천현숙. 2004.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 사회학』 38(4): 215-24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근교마을의 사회경제구조: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_____. 1989. 『평야마을의 사회경제구조: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_____. 1989. 『중간마을의 사회경제구조: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_____. 1989. 『산간마을의 사회경제구조: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 _____. 1995.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제10년 차 조사 결과 종합보고.
- _____. 2002.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종합보고서.
- 한도현. 2000. “기업형 시설농민의 사회적 자본과 커뮤니티 애착.” 2000

- 년도 춘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농촌사회학회.
- _____. 1989. “국가권력의 농민통제와 동원정책: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II.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편.
- 황인정. 1983. “198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과제와 발전 방향.” 『농촌경제』.
- Alder Pauls S. and Kwon, Seok-Woo. 1999.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aper Presented at the 1999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 in Chicago.
- Bernard, Jessie. 1982. *The Sociology of Community*. 안태환 (역). 박영사.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유석춘 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2003. 도서출판 그린.
- Choe, Yang-Boo. 1978. *The Korean Model of Rural Saemaul Undong: Its Structure, Strategy and Performanc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 Coleman, Jame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S95-S120.
- _____.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Rational Reconstruction of Society.” *Sociological Review*. 84: 1460-74.
- Collier, Paul. 1998. *Social Capital and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 Doglass, M. “The Korean Saemaul Undong: Accelerated Rural Development in an Open Economy.” *Rural Development and the State: Contradictions and Dilemas in Developing Countries*. Lea and Chaudhri (eds.). London.
- Evans, Peter.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24(6).

- Falk Ian. and Sue Kilpatrick. 1999. "What is Social Capital: A Study of Interaction in a Rural community." Center for Research and Learning in Regional Australia. CRLRA Discussion Paper Series. D5/1999.
- Feldman, T. and Assaf, Susan. 1999. "Social Capital: Conceptual Framework and Empirical Evidence." An Annotated Bibliography, Social Initiative working Paper 5. the world Bank.
- Fukuyama, Francis.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97.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oode, W.J. 1957. "Community within a Community: The Profess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194-200.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 Grootaert, Christiaan. 1998. "Social Capital: The Missing Link?"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3. The world Bank.
- Grootaert, Narayan, Jones, Woolcock.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18: the World Bank.
- _____. Woolcock.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19: the World Bank.
- Hahn, Sung-Joe K.S. 1980. "Political Philosophy of the Saemaul Movement." *Toward a New Community Life*. Lee Man-Gap E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wley, Amos. 1950. *Human Ecology: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 Hillery, Jr. Gorge.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June).
- ICA. 1956. "The Community Development Guideline."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ICA. December. Washington D.C.
- Miniclier. "Community Development Defined."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ICA. December. Washington D.C.
- Narayan D. and L. Pritchett. 1996. "Cents and Sociability: Household Income and Social Capital in Rural Tanzania." World Bank. Environment Department. Washington D.C.
- Narayan, D. 1995. "Designing Community-Based Development." Environment Department Paper 7. World Bank. Environment Department. Washington D.C.
- Narayan and Cassidy.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March 49(2): 59-102.
- Nisbet, Robert. 1970. *The Social Bond*. New York: Knopf.
-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Park, Jin-Hwan. 1997. *The Saemaul Movement: Korean's Approach to rural Modernization in the 1970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22. Seoul.
- Poplin, D. 1972.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 Portes, Alex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 Putnam, robert. 1993a. *Making Democracy: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 Putnam,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n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 Redfield, Robert. 1956. *The Little Community: Peasants Society and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ltz, Theodore. 1976. *Transforming Traditional Agriculture*: Aron Press. New York.
- Uphoff, Norman. 1993. "Grassroots Organizations and NGO in Rural Development: Opportunities with Diminishing States and Expanding Markets." *World Development* 21(4): 607-622.
- _____.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the World Bank.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연구보고 R478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발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연구(2차 연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4. 12.

발 행 2004.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태광인쇄

전화 02-468-9430 E-mail: tprint@hanmail.net

ISBN 89-89225-69-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